

‘코로나 불황 극복’ 황리단길의 비결은 **3**

“스트리밍 영화 제작” 스피버그의 변심 **25**

코스피(22일) **3263.88** (+23.09P)  
코스닥 **1011.56** (+0.57P)  
환율(달러당 원화) **1131.90** (-2.8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331%** (-0.002%p)

## 특권·차별 ‘사라진 正義’ 다시 그리는 公正지도

‘유리천장’·‘성소수’ 종로 ‘차별 이슈’  
노량진·여의도 ‘약자 배려도 불공정’  
과도한 경쟁 내몰려 ‘공정 담론’ 증발

- 〈글 쓰는 순서〉
1. 대학동 : 부동산 외판점
  2. 관악 : 서울대, 그들만의 리그
  3. 여의도 : 동학개미의 ‘편의 전쟁’
  4. 노량진 : 공사공화국의 수도
  5. 긴급진단 : 2030 공정인식
  6. 종로 : 무지개 깃발 짓밟지 마라
  7. 광화문 : 굳게 닫힌 유리천장
  8. 지방 : 허물어 갇힌 서울나비
  9. 인천 : 勞勞갈등, 공정 블랙홀
  10. 청년·공정·특권, 전문가 제언

‘관악’ 종로 ‘노량진’ ‘영종도’ ‘여의도’ ‘광화문’.  
한국사회의 불공정 이슈가 ‘날갯’처럼 드러난 상징적 장소들이다.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서울대학교가 있는 서울 관악구는 양극화 표본지역이다. 성소수자 밀집지이며 다양한 직종이 몰려 있는 서울 종로구에선 차별 이슈가 불거졌다.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 밀집지인 서울 노량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는 인천 영종도는 취약 계층 배려 문제가 극명하게 갈려 표출된 곳들이다. ▶관련기사 4·5면  
노력, 능력과 무관한 학력, 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과 특혜는 물론 사회적 약자의 구제마저 절차적 정당성을 들어 공정의 잣대로 평가하는 사회가 지금의 한국이다.  
이투데이는 불공정 이슈가 제기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 담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청년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선출은 공정을 갈망하는 한국사회의 상징적 결과물이다. 이 대표의 공정은 ‘엄격한 줄 세우기’로 요약된다. 시험성적, 학벌처럼 객관화가 가능한 기준을 노력의 결과로 보고, 이를 토대로 보상을 결정하는 사회다. 여기서 기회수단의 불균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특정 대상의 결과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게 불공정한 것이다.  
기득권층이 행하는 불공정의 다른 표현은 합법적 특권을 앞세운 반칙이다. ‘청년 멘토’로 불리던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 시절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2년 강연에서 “공정의 반대말은 불공정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기회의 균형

을 맞춘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도 불공정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 여성·청년고용 할당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확대, 입시전형 다양화, 고졸·지역인재 채용, 블라인드 채용 등 대상도 다양하다. 유년기부터 줄 세우기를 강요받고, 그 틀에서 경쟁해온 2030세대에 이들 정책은 ‘배려의 탈을 쓴 새로운 특권’에 불과하다. 이 대표의 청년층의 니즈(요구)를 정확히 읽어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렇듯 ‘새로운 공정론’은 전통적 공정론에서 불공정의 대명사였던 특권뿐 아니라, ‘노력의 결과’를 다른 잣대로 판단하는 모든 행태를 부정한다.  
새로운 공정론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류로 증명 가능한 결과만 노력의 대가로 인정하면,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들은 실질적인 노력·능력·무관하게 낙오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청년층은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자기 중심적 공정성’을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집단적으로 같은 방식의 노력을 강요받으면서 그걸 공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자신들과 다른 노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국보’ 승례문  
사상 첫 후문 개방  
22일 승례문 후문에서 파수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재청 공영유적본부는 이날부터 국보 승례문 정문 외에 후문을 추가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승례문 후문이 일반에 개방된 것은 처음이다.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서울역 쪽으로 난 정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장과 가까운 후문을 통해 승례문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후문 개방 시간은 정문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연합뉴스

## 베일 벗은 삼성 네트워크 ‘超연결’ 가속

삼성전자가 신규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솔루션을 대거 공개하며 시장 선도에 나선다. 유럽, 일본, 캐나다의 유력 이동통신사와 연달아 5G 장비 공급계약을 맺는데 이어, 처음으로 5G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점유율 확대 신호탄을 쏘았다.  
▶관련기사 11면  
삼성전자는 22일 오후 11시(한국 시

간) ‘삼성 네트워크: 통신을 재정의하다(Samsung Networks: Redefined)’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별도로 단독 행사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선 전경훈 네트워크사업부(사장)가 직접 진행에 나서 △기타국용 차세대 핵심 칩 △차세대 고성능 기지국 라인업 △

5G 가상화 기지국 솔루션 등을 소개했다.  
해당 기술들은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이면서도 기지국 크기를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 사장은 “삼성전자는 4G 이동 통신이 보급되기도 전인 2009년에 선제적으로 5G 연구를 시작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하는 등 세계 5G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초연결 시대로의 진입 가속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 내달부터 해고·실업자도 노조 가입

34년 만에 ‘법외노조 통보제’ 폐지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가 3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 발생으로 인해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은 1988년 4월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다. 그동안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법외노조 통보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교조로서는 공식적으로 법적 노조 지위를 되찾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유지했다.  
경연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평생 무료로 쓰는  
결제단말기가 있다고?”

# 어디서 그런 POS가 나와?

## IBK에서

IBK기업은행이 만든 모바일 POS 앱 하나면 스마트폰을 POS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도, 설치도, 유지비용도 모두 무료!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IBK BOX POS**

**POS 모드**  
메뉴 관리, 테이블 주문 관리 등 일반 POS 기능이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매출 입금확인**  
가게 매출이 카드사에 정상 매입되었는지, 대금 입금일은 언제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간편결제 모드**  
금액 입력 후 결제할 카드나 스마트폰을 사장님 스마트폰 가까이 대면 결제 완료

**일간 재무리포트**  
일별로, 시간대별로, 메뉴별로 판매현황을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283호(2021.06.14) 유효기간(2022.06.13)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중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BOX POS 고객센터(☎02-729-7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융·양행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 코로나 충격에 맞벌이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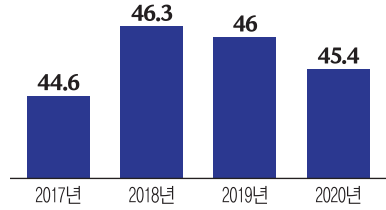
작년 0.6%P ↓ 2년째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지난해 맞벌이 가구가 전년보다 6만9000가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2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서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유배우자 가구가 1233만2000가구로 전년보다 2만6000가구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맞벌이 가구는 559만3000가구로 6만9000가구 줄었으며,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5.4%로 0.6%포인트(P) 축소됐다.

맞벌이 가구 감소는 저학력층 등 취약계층에서 두드러졌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외 부활동 위축으로 숙박·음식점업 등 대 면서비스업 일자리가 급감한 탓이다. 가구주 교육정도별 맞벌이 비중은 대졸 이상에서 49.1%로 0.3%P 확대됐

맞벌이 가구 비중 (단위: %)



으나, 고졸과 중졸 이하는 각각 36.3%로 1.7%P, 44.7%로 1.5%P 축소됐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와 50~65세, 자녀 연령별로는 7~12세 구간에서 맞벌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축소됐다.

1인 가구는 621만4000가구로 전년보다 17만5000가구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도 30.4%로 0.5%P 확대됐다. 단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 비중은 59.6%로 1.2%P 축소됐다. 맞벌이 가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 가구가 감소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파월 의장 “인플레이션 일시적” vs 위원 다수 “리스크 대비를” 연준의 ‘양치기 소년’은 누구일까

5월 근원 CPI 29년래 최고치  
경제학자 사이에도 의견 갈려

인플레이션 위험을 두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1일(현지시간) 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특별 소위원회 출석을 하루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면서도 “일시적인 공급 문제가 해소되면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치(2%) 밑으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파월 의장과 달리 물가상승률에 대해 매파적 견해를 보이는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로버트 카플란 델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한 포럼에서 “연준의 경

제 전망이 바뀐 것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걸 반영한 것”이라며 “연준은 완화적인 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카플란 총재와 같은 포럼에 참석한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서 “상방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러드 총재는 연준 내 비둘기파 인사로 통하지만, 18일 매파적 발언을 해 시장을 요동치게 했었다.

반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다른 한 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해 “여러 데이터와 여건들은 연준이 경기부양을 위한 강력한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기에 충분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며 파월과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일단 시장은 연준 의장인 파월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상임 부의장을 맡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에 더 주목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그간 연준의 긴축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과도했다는 평가와 함께 1%대 안팎의 상승세로 마감했다.

지표상 수치는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5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3.8% 올라 29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지난해보다 5.6% 상승했다.

연준은 과거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악몽’에 시달렸던 전적이 두 번이나 있다. 첫 번째 악몽은 1970년대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험한 부진한 인플레이션 회복세였다.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경기가 주저앉았는데, 연준이 통화완화 정책을 이어가다 잡곡이 발생했다. 1960년대까지 2% 이상 오른 적 없던 미국 인플레이션은 1970년부터 1974년까지 연평균 12% 이상 상승했다. 반면 금융위기 이후로는 연준이 경기 침체와 물가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디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 하락) 압력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인플레이션 판단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중고차나 목재 등 가격이 치솟았던 품목들이 최근 안정을 찾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인플레이션은 사라질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발언들은 실제 위험에 비해 과장됐으며, 인플레이션 위험도 이제 몇 주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신호를 무시하면 1970년대처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970년대에도 연준은 비전통적인 일시적 외부 요인이라며 오일쇼크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경시했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실수였다”고 꼬집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당신의 희망이 담긴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류호정發 타투업법, 긴장하는 교육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문신) 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교육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투 합법화는 성인보다 청소년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청소년(학생) 문신에 대한 지도와 관련해 초·중·고등학교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매뉴얼을 만드는 등 국가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석 교총 교원복지본부장은 “청소년(학생)의 외상 문신, 의료 문신 등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논란이 되는 서화 문신은 청소년 건강 문제를 물론 다른 학생에 대한 위화감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청소년 문신 금지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타투 합법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문신사법을 지난해 10월 다시 발의했다. 미용·예술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미성년자나 병역 의무 기피 목적의 문신은 금지하자는 게 박 의원 제안이다. 국민의힘 염태영 의원은 3월 눈썹, 아이러인 등 화장 문신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발의했다.

류 의원이 11일 발의해 국회 복지위 상



류호정 의원 SNS 캡처.

미성년자 시술 규정 없어 학생들 무방비 노출 우려 명확한 원칙과 기준 필요

정을 기다리고 있는 타투업법은 타투리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미성년자 시술을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은 두지 않았다. 다만 ‘타투행위의 대상 및 타투리스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해 시행령에서 미성년자 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김 본부장은 “앞선 두 법안은 청소년(학생)에 대한 문신을 금지했지만 류 의원의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교원의 타투 시술도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닌 교사 등 공무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문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통해 과도한 문신은 제한하고 있다.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시대가 변한 만큼 교사 등 공무원의 문신을 어떻게 봐야 할지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며 “막연한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과 조화를 이루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미성년자 타투 합법화는 공직자와 다른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 “주민·상인 힘합쳐 상권 살렸죠” 황리단길 다시 ‘웃음꽃’

## 리포 경주 황리단길 ‘코로나 불황’ 이긴 비결은

“오늘 일요일이야?” 착각이 들었다. 월요일인 21일 오전 10시, 경상북도 경주시 황리단길에는 주말처럼 사람이 많았다. 거리 초입에 서니 옆엔 천마총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알록달록한 키 작은 상점가의 머리 위로 탁 트인 하늘이 보였다.

젠트리피케이션(동지 내몰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름하던 황리단길이 활기를 찾고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데다 휴가철까지 겹치며 관광객이 늘고 있는 것.

경기도에서 왔다는 김모(22) 씨는 방학을 맞아 경주를 찾은 참이었다. 한옥을 개조해 운치가 넘치는 카페에서 만난 그는 “유적지를 보러 가기 전에 커피를 사러 왔다”며 “걸어서도 곳곳을 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상인들도 함박웃음이다. 황리단길에서 3년째 닭강정을 판매 중인 이승호(51) 씨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든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며 “방학, 휴가가 있는 7-8월과 백신 접종 이후엔 더 좋아질 거라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황리단길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다. 원래 황리단길은 오래된 선술집, 점집이 전부인 거리였다. 40~50년 전이나 도

‘착한임대인’ 운동 펼쳐 상생 노력 상인회 조직, 지원사업 유치 힘써 평일에도 상점마다 관광객 ‘복적’ 경주 구도심·전통시장 부활 과제

심으로 불렸지만 몇 년 전부터 ‘리단길’ 열풍이 불면서 황리단길도 함께 떠올랐다. 황리단길만의 차별점은 ‘위치’다. 주요 유적지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만큼 유동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다.

내남네거리 방향 황리단길 초입에는 천마총이 있는 대릉원이 버티고 있다. 왕릉보다 낮게 깔린 상점들이 늘어선 황리단길을 가로질러 조금만 걸으면 첨성대, 월성 동공과 월지 등이 있는 동부 사적지대가 나온다.

수제맥주 가게를 운영 중인 전진숙(42) 씨는 “경주는 원래 관광지”라며 “차를 타고 30분만 나가면 바닷가이고 근처에 유적지뿐만 아니라 경주월드, 공원 등도 있어 사람이 많이 온다”고 설명했다.

빠르게 성장한 만큼 황리단길 점포들의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관리금도 6000만~8000만 원가량 발생하는 등 임대료 갈등



21일 경상북도 경주시 황리단길을 관광객들이 걷고 있다.

심민규 수습기자 wildboar@

이 일어나기도 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꾀했지만, 임대인이 자주 바뀌어 이런 노력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대기업 점포가 진출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징후도 포착됐다.

하지만 황리단길을 유지하려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민하는 청년 대표들도 늘

고 있다.

골목 초입에서 만두 가게를 운영하는 이병희(32) 씨는 “황리단길 임대료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젠트리피케이션도 70%가량 진행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대기업 브랜드의) 입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데다, 구도심 대비 임대료가 낮았던 황리단길 시세를 고려하면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황리단길 상인회를 조직하고

화합에 나섰다. 회장을 맡은 이 씨는 “스마트화 등 지원사업을 유치하려면 상인들이 뭉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리는 상인들이 만든다”며 “젊은 사람들이 계속 장사하고 싶어하고 밀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활발한 골목상권을 확장하는 것이 됐다. 황리단길에서 걸어서 5분 남짓인 구도심의 경우 점심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었다. 곳곳에 임대 팻말을 내건 빈 점포도 많았다. 민속공예품, 의류 등 도소매업 상점이 많은 데다 가게 주인들의 연령대도 높아 변화를 꾀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다. 도심지역이었던 만큼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임대료 역시 진입장벽을 높였다.

최해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위원은 “경주 전통시장이 인근에 있지만,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며 “황리단길과 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시장이나 구도심까지 갈 수 있는 연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디원 기자 leedw@

경태우 수습기자 burning@

김예슬 수습기자 viajeporlune@

심민규 수습기자 wildboar@

## ‘반도체 대란’ 美 소비자 덮쳤다

PC·노트북·프린터 등 전자기기 가격 잇따라 올라 “가격 상승 장기화 전망…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 가중”

글로벌 반도체 대란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이 노트북과 프린터의 가격을 올리고 있는 데 이어 스마트폰 등 다른 인기 제품까지 파급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시작된 이번 대란은 컴퓨터와 주변 기기 등 전자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으며, 스마트폰 등 기타 상품 가격까지 자극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도체 부족에 따른 비용 부담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피부로 느낄 만큼 제품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 일부 노트북의 인기 모델은 최근 2개월 사이에 가격이 올랐으며, 소매점에서는 다른 전자 기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미국 가격 정보 사이트 키파에 따르면 대만 에이수스의 게임 전용 노트북 가격은 이달 들어 900달러에서 950달러(약 107만 원)로 올랐다. 휴렛팩커드(HP)의 크롬북 노트북 가격은 이달 초 종전 220달러에서 250달러로 상승했다.

번스타인리서치는 HP가 최근 1년간 소비자용 PC 가격을 8%, 프린터 가격을 20% 각각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엔리케 로레스 HP 최고경영자(CEO)는 가격 인상에 대해 “부품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비용 증가를 반영해 가격을 추가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PC 업체들 역시 부품 비용 상승을 반영해 가격을 적절히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공급 부족의 틈을 타 이익을 보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가격 인상은 자사가 치르는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제조업체들이 일제히 생산량을 확대하면서 반



미국 피츠버그의 베스트바이 매장에 휴렛팩커드(HP) 프린터들이 진열돼 있다. 피츠버그/AP뉴시스

도체 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칩 구성 부품인 실리콘 웨이퍼나 제조에 사용되는 각종 금속 수지, 금속 등 다양한 품목에서 비용이 오르고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생산 제약, 재택근무·원격 학습을 위한 노트북 수요 증가, 5세대 이동통신(5G) 보급에 따른 신형 스마트폰 수요 확대 등이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WSJ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른 히트 상품도 가격 인상의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무선 통신 회로에 특화된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흑탄 CEO는 이달 콘퍼런스 콜에서 “비용 인플레이션을 목격하고 있다”며 “고객들도 현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 포드 전자부품업협회(ECIA) 수석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최근 비용 상승이 최종 소비자 가격 데이터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케이스가 있다”며 “또 종종 장기 계약으로 설정돼 있어 시장 요인에 의한 가격 조정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최근 소비자 제품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재료 가격이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며 “가격 상승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효선 기자 hsbun@

### 다 다른 인생에 다 맞춘 보험.

같은 나이에도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 모든 당신의 인생에 따라 끝없이 변화하는 인생보험이 되기 위해

**다 다른 인생 즐겁게 나아가도록 삼성생명이 발맞춰 갑니다**

인생맞춤 인생보험 삼성생명



# “쓰다 버리는 건전지 같은 부품 불과” 자괴감에 허탈



## 일상이 된 불공정

“나는 기업에서 건전지 같은 존재다. 리모컨 작동이 안 되면 사람들 대부분은 건전지를 교체하려고 한다. 리모컨이 망가졌을 수 있는데 말이다.”

한 중견기업 총무팀에 채용연계형 인턴 사원으로 합격했을 때만 해도 박현석(28·남·가명) 씨는 희망에 부풀었다. ‘열심히 일하면 몇 개월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이 ‘부품’에 불과하다는 자괴감뿐이다.

입사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박 씨는 아직도 정규직 전환기준을 모른다. 역량과 행동거지를 평가한다고는 하나, 평가 결과가 공정할 것이라 믿음이 없다. 선배들에게 듣는 말이라곤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평가하니 어떻게 노력해 보라’는 조언이 아닌 “물래 다른 회사에 지원하기만 해보라”는 식의 협박이다. 기약도 없는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저임금에 청년들을 부품처럼 쓰다 버리는 게 장 씨가 생각하는 인턴 제도다. 경쟁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 ‘기약없는 정규직 전환’ 미끼 인턴 열정페이 시달려 몸도 마음도 병들어 정규직 돼도 업무역량보다 인간관계 동료에 인사고과 밀려 ‘승진’ 희망고문

김태웅(30·남·가명) 씨는 지난해 두 차례 대기업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했지만,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그는 반복되는 채용 실패로 사기업 취업을 포기하고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다.

김 씨는 인턴으로 근무할 때 실무역량평가에서 동기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합격자는 그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동기였다. 그는 “인턴에 참여한 두 기업에선 학연, 지연, 혈연 등도 평가요소에 넣었다”고 말했다. 객관적 능력보단 ‘후광효과’가 당락을 갈랐을 것이라 얘기다. 마지막 인턴 후 정규직에서 탈락했을 때 김 씨의 머릿속엔 ‘허탈하다’는 네 글자뿐이었다.

인턴 탈락의 후유증은 크다. 열정페이에 시달리는 동안 몸도, 마음도 병든다. 인턴 탈락이 반복될수록 늘어나는 나이는 덤이다. 더 큰 문제는 다음이다. 인턴 경험은 이력서에 넣지도 못한다. 다른 인턴들과 경쟁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탈락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된다면 상황은 나아질까. 채용 과정부터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외침은 인사 후에도 이어졌다.

A 백화점 영업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최유진(33·여·가명) 씨는 입사한 지 8년이 지났지만 ‘만년 대리’다. 그가 ‘탈(脫) 대리’를 못 하는 건 인사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출근해 매출 증가라는 성과를 냈음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인사고과를 받았다.

최 씨는 “인사평가가 업무 역량보다 사내 정치를 잘하느냐가 평가의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술을 즐기지 않고 사내 정치에 동참하지 않는 그는 항상 고과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반면, 재택근무를 병행한 1년 선배는 고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최근 승진한 팀장 줄을 잘 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흔히 말하는 ‘내 사람 챙기기’가 많이 작용한 탓”이라고 말했다.

기준이 모호한 인사고과는 최 씨에게 일할 동기를 잃게 했다. 기업의 핵심 인재가 되자는 입사 초 각오는 사라진 지 오래다. 지금은 가늘더라도 직장에 오래 붙어 있자는 생각뿐이다. 최 씨가 생각하는 불공정의 핵심은 개인의 업무 역량보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제도다. 평가 주체가 시스템이 아닌 사람이다 보니, 주관 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최 씨는 “벌써 몇 년째 ‘승진’이라는 희망고문에 속고만 있는 내가 안스럽다”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프로세스가 아닌, 업무 성과를 공정하게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심민규 수습기자 wildboar@

**Shinhan**

**새로워진 신한알파**

주식도 금융도 나에게 맞춘 금융 맞춤 Fit을 경험하세요!

상담전화 | 1588-0365  
홈페이지 | www.shinhaninvest.com

QR코드 AOS IOS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 무시된 절차는 또다른 불공정

### “공정 내세웠지만... 모든 노력이 물거품”

5성급 호텔 조리사로 일하던 김승준(26·남·가명) 씨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명문대를 졸업해 대기업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게 목표였다.

그런 김 씨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은 좌절감만 안겼다. 그에게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규직은 남들보다 좋은 스펙을 쌓고 입사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자리였다. 그런데 이렇다 할 스펙도, 입사전형도 없이 비정규직 2년 일했다고 정규직 전환이라니... 김 씨는 “기득권층이 ‘부모 찬스’로 기회

하지만 장 씨에게 학벌은 ‘노력의 결과’다. 지방 출신인 그가 연고도 없는 서울에 올라온 이유도 오로지 대학 때문이다. 출신 대학이 성실함, 지식수준 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학벌을 기준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 공정하다는 게 장 씨의 생각이다. 그는 “서울권 대학에 오려고 피 터지게 공부했고, 스펙을 쌓기 위해 토익 학원도 여러 번 다녔다”며 “이제 와서 ‘블라인드’를 씌우니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게 허사가 됐다”고 토로했다.

뒤늦게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이번엔 지역인재 채용제도

정부 ‘결과의 공정’만 추구... ‘과정상의 노력’은 무시  
학력·스펙 ‘와르르’·쏟아부은 시간·돈 ‘매몰비용’으로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공공기관이 기관 소재 시도 대학을 졸업자를

를 잡는 것도 화가 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처럼 과정상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절차의 공정’을 무시하고 ‘결과의 공정’만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순되게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공정’이었다. 출발이 공정하지 않았으니, 출발선에서 뒤쳐진 이들을 과정에서 배려하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 관점에서 ‘공정’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불공정’이었다.

이런 상황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으로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장준호(29·남·가명) 씨는 블라인드 채용이란 벽에 부딪혔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출신 학교·지역 등을 배제하고 직무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 학연·지연·혈연으로 대표되는 ‘인맥’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일정 비율로 채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할당제다. 장 씨와 같은 서울 대학 졸업자는 공공기관 소재 시도 출신이라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도 외 대학 졸업자들은 할당분을 뺀 정원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공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교육정책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자율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2025년까지 일괄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못 박았다. 2019년 ‘조국 사태’로 촉발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서 고등학교 서열화가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출신 고교를 배제한 공정한 입사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청년들이 말하는 노력에는 그동안 투자한 시간·금전적 비용도 포함된다. 입사·취업을 포기하거나, 목표를 하향 조정한다면 지금껏 쏟아부은 시간과 돈은 회수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0’인 매몰비용이 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김예슬 수습기자 viajeporlune@

더 새로워진 신한알파 | 초보 투자자 서비스 | 내만의 맞춤상담 서비스 | 투자정보 큐레이팅

※투자 전 설명청취 ※원금손실 가능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국내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모바일 기준 0.186443%이며, 홈페이지 참조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17015호(2021.04.01~2022.03.30)





# 더 싼 곳으로 '월세 노마드' 멀어진 '내 집 마련 꿈'



## ① 대학동: 부동산 외판점

20·30 청년들에게 서울에서 집을 사는 일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 원을 돌파했다. 평균 연봉을 3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40년 가까이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집을 살 수 있다. 기성세대는 이미 집을 소유해 부를 불리는 중이지만, 청년세대들은 매달 월세 내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정부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보유세 등 기성세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들은 '부동산 불공정'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기울어진 구조 탓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20·30세대가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셋집 마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조사기관인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에서 전국의 집값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4년간 서울의 집값은 34.95%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2017년 5월 4억2619만 원에서 올해 5월 6억1451만 원으로 44.18% 상승했다.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셋집 구하기도 너무 비싸서 청년들 에겐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감정평가사를 준비하는 윤경주(29·가명)는 자산 불평등을 몸으로 체험했다. 2년 전 관악구로 온 윤 씨는 학원과 서점이 모여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들 월세내기 벅차 부모 도움 없인 전셋집 마련도 쉽지 않아 취업해도 서울 집 장만은 '하늘의 별 따기'

있는 고시촌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의욕은 서울대입구역의 높은 월세에 무너졌다. 서울에서 가장 싸고 대형 학원가와 가깝다는 얘기를 듣고 왔지만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는 월세는 윤 씨가 책 보파리를 풀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다. 윤 씨는 더 싼 월세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바로 옆 대학동에 현재의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월세 45만 원짜리 집에서 지내다가 최근 집을 옮겼다. 오래 살 생각이 없어 2차 시험이 있는 8월까지만 계약

했다. 월 35만 원, 10만 원을 줄인 가격이었다. 닉 달치 140만 원을 한꺼번에 냈다. 누군가의 두 달치 월세로 윤 씨는 닉 달을 살 수 있다며 안도했다. 윤 씨는 햇수로 3년째 대학동에 있지만, 그는 아직 '서울대입구역 주변'을 부러워한다. 윤 씨는 "서울대입구역은 학원의 접근성, 규모 면에서 유리하다 보니 선생님과 교류도 잦을 것이고 실력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고 뿌듯함을 내비쳤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격선에 가까워진

윤 씨는 합격과 취업 이후에 대한 걱정도 컸다. '대학동 고시촌을 떠나면 서울 어디에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었다. 다른 지역엔 전·월세 마련도 쉽지 않다. 최근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선배는 고액연봉자임에도 서울 자가 마련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하고, 그 선배는 영업을 잘해서 돈도 잘 버는데 서울에 있는 집을 못 산다"며 한숨을 쉬었다. 박준상 기자 jooon@이대신문.com



월세가 저렴한 대학동 고시촌은 서울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대학동 고시촌 거리(왼쪽부터)와 월세 시세, 취업준비생 윤경주(가명) 씨의 집 내부.



## 전문가 진단

### “집값 ‘고공행진’에 공급대책 부족 청년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 필요”

2030세대에 생명권이 달린 주거 공간이 기성세대에는 투자 목적이 되는 자산 불공정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자산 불공정의 배경이 높아진 집값과 부족한 주거 대책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도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030세대와 기성세대가 집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임 수석연구원은 “40대 이상의 연령층

했다. 임 수석연구원은 “월세도 그렇고 좋은 위치에서 구하려면 집값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원활하게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행복주택이든 역세권 주택이든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고 있지만 그 양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했다. 김 교수는 “공급 정책은 평소에 늘 지속해서 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서 전략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은 너무 정치화가 돼 있어서 그와 같은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가 지원만 하고 공급을 하지 않으면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매력이 늘어나 주택 가격이 오른다”며 “(현금 지원만 있으면) 주택 가격 자체가 계속 오를 때 정부의 재정 지원이 계속 늘어나니 공급은 지속해서 확충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김준형 명지대 교수

### 주택부족 탓 주거 불공정 확산 정부가 나서서 공급 확충하고 '반반아파트' 같은 정책 내놔야

에서는 집을 통해 수익을 보는 반면 2030세대는 딱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았다”며 “자금 규모가 작다 보니 대출을 통해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더 투입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거비 부담이 계속 커진 상황이 지금 청년들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사는 집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이 돼 있어서 저축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기 집의 소유권을 가지나, 아니면 월세를 내느냐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높아진 집값과 실효성이 부족한 주거 대책 등이 청년들이 주거 불공정을 겪는 배경이라고 설명

이 같은 주거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청년들도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청년들이) 소유권을 일부라도 갖게 되면 나중에 재판매할 때 일부 자본이득에 대해 자기가 지분만큼 가져갈 수 있다”며 “청년이 자산을 생기게 하는 정책 자체가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 같은 대책이다.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했다. 민달팽이유니온 등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그 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난 달 11일 '청년 1인 가구 대책 간담회'를 진행해 △헌법에 주거권 신설 △최저주거기준 상승 △청년을 위한 주거 상황 지원사업 실시 등을 제시했다. 박준상 기자 jooon@이대신문.com

## 청년들 “내 집 마련 희망 갖게 하는 게 중요”

### ‘매입임대’ 주거환경 열악... ‘공공임대’ 입주는 남 얘기

대한민국을 사는 많은 청년이 부동산 불공정에 절망하고 있다. 기성세대에게 자가 마련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었다면, 청년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취업을 위해 상경한 이모 씨(28)는 지난해 LH가 주관하는 서울시 내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됐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 임대사업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당첨된 매입임대주택에서 나와야만 했다. 입주한 매입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이다. 그는 “6개월을 기다려 입주했지만 교통이나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너무 열악했

다”면서 “돈을 더 주더라도 인프라가 더 나은 곳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임대주택을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을 나온 이 씨는 신림동 일대 원룸에 거주하며 고향으로의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20대 초반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왔지만 이제 서울에서 살지 말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경력이 생기면 같은 돈을 주더라도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는 고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강모 씨(29)는 1억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에도 5평 남짓한 원룸에서 살고 있다. 치솟은 전셋값은 온전히 누울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가 이용한 대출 상품인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중기청 대출)’의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강 씨는 “임대인들이 복잡한 중기청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 엄청나게 발품을 팔아야 한다”면서 “행복주택처럼 평수나 조건이 좋고 마음 편히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당점 확률이 너무 낮아 그저 남의 얘기 같다”고 푸념했다. 청년에게 진짜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잠깐 집을 빌려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해서 번 노동소득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라는 말도 건넸다. 청년에게 불리한 청약 제도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모 씨(28)는 3억 가까운 금액을 대출받아 월급의 절반 정도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박준상 기자 jooon@이대신문.com

### 행복주택·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 등 지원책 내놨지만 “전셋집도 못구해...실효성 없다”

청년들의 주거 불공정은 최근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정책을 내놓았지만, 청년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기성세대가 집을 이미 부의 증식 수단으로 삼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생존을 위한 살 집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과 기숙사 제공 등 다양한 청년주거 방안을 내놨다. △행복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월세 대출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저렴하게 제공된 주택은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거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동대문에 한 호텔형 역세권 청년주택은 90%가 입주를 포기했을 정도다. 좋은 매물은 구하기 힘들어서 한동안 발품을 팔아야 구할 수 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주거권을 확보할 수 없는 이유는 기

성세대가 자산 대부분을 소유하며 주택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도 집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 전세임대주택 해당자가 돼서 집을 알아본 송경수(24) 씨는 “전셋집이 많이 없더라”며 “용자가 없는 집을 구해야 하는 조건도 있는데 그런 집을 찾기도 어렵다”고 한탄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도 사실상 혜택받기가 어렵다.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지만 전셋값이 너무 올라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고충도 나온다. 임대료를 지원해주거나 전세자금 대출해주는 제도도 일시적 지원에 불과하다. 돈이 생기는 대로 이자를 갚기 위해 써야 한다. 자기는 커녕 전셋집도 자기 힘으로 얻기 힘든 실정이다. 박준상 기자 jooon@이대신문.com



# “X파일, 與 개입했다면 정치공작” 위기의 尹, 정면 돌파

〈윤석열 전 검찰총장〉

尹·가족 의혹 쏟아지자 뒤늦게 반격  
민주당 공세 강화…국힘은 대응 안해

X파일 의혹 등으로 위기를 맞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X파일을 ‘출처 불명의 괴문서’라며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상록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22일 기자들에게 장모 주가 조작과 X파일 의혹 등에 관한 윤 전 총장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전 총장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쏟아지자 직접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출처 불명의 괴문서에 연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공작의 연장선상인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출처 불명의 괴문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이어 친보수 논객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언급하면서 화제가 된 ‘윤석열 X파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은 “국민 앞에 나서는 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을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X파일과 관련해 “저도 요약된 비슷한 걸 보긴 봤다”며 “정치는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건 사과하고 부당한 건 부당하다 지적해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난처한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이 당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이라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아직까지 당에서 확장해서 대응하기 좀 어렵다”며 “경계망동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X파일을 받을 거냐는 물음에 “그걸 받을 의향이 있다 없다는 난센스 답변”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준상 기자 jooon@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연합뉴스

## 文 “남북·북미관계 개선” 성김 “대화재개 최선”

김여정 “꿈보다 해몽…잘못된 기대”  
한미 워킹그룹 2년 여 만에 폐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남북·북미 간 대화 재개 노력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냉랭한 반응을 거두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우리와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 진전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협력·협약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북미 관계 개선에 성공을 거두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 접견에 이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남북·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대해 논의했다.

한미가 한미 간 남북관계 관련 사항 협의 채널인 ‘워킹그룹’을 출범 2년여 만에 폐지하기로 한 점도 대화 방식의 변화 징후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비핵화와 남북 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했다. 그러나 미국이 워킹그룹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때론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내 일각에선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변화들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메시지에 대해 미국 백악관 측이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다. 김 부부장은 “조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며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조건 없이 만나자”고한 미국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일환 기자 whan@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선 연기’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k@

## ‘이재명 vs 反이재명’ 경선연기 갈등 격화

민주당 의총서도 결국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 시기를 두고 내홍을 빚고 있다. 1강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견제를 위해 후보추진 측 의원들이 제기한 연기론 논쟁이 격화되면서다.

각 대권 주자와 지지 의원들의 공중전으로만 이어져 왔던 경선연기론 논란은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돕는 의원 66명의 요구로 22일 의원총회까지 소집되며 절정을 맞이했다.

의총에선 4명 의원의 찬반 발언에 이어 20명 의원이 자유발언에 나서 3시간 동안 격론이 벌어졌다. 찬성에 정세균계 김종민, 이낙연계 홍기원 의원이, 반대에 이재명계 김병욱·김남국 의원이 나서 ‘이재명 대 반(反) 이재명’ 구도로 나뉘어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선 연기론 측인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은 여의도 서울마리나에 모여 공동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 길 가능성이 클 때 경선을 하는 게 좋다.

가장 좋은 건 이 지사가 통 큰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집단에 대한 지지는 신뢰에서 나오는 거고 신뢰는 약속과 규칙을 지키는 것에서 생긴다”고 연기 반대 뜻을 재차 밝혔다. 이어 자신의 지원조직인 공명포럼이 15만 명 발기인을 등에 업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출범하는 자리에 참석하며 지지세를 과시했다.

대권 주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경선 연기론 내홍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의총 자유발언 중 경선 연기 여부로 다투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자성론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경선을 언제 할지에 관심이 없는데 우리끼리 이를 두고 싸우니 마음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건 다들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4·7 재보궐 선거 때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있던 의원들이 후보를 먼저 뽑으니 국민의힘의 단일화 등 이슈에 묻혀 밀렸다는 반성론이 워낙 커 지금 같은 과열 분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세분화해 지원”

당정청, 피해수준·매출 등 현장 고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별·일수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장을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액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전 피해 지원금을 감안해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액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금액을 기금적 세분화해 지원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세분화와 관련해 이동주 의원은 “그동안 지원금보다 일할 계산이 좀 더 보

강했다”며 “앞서는 제한업종이나, 금지업종이나에 따라 500만 원, 300만 원이 정액 지급된 반면 오늘(22일) 제한한 건 실제 영업 금지 제한 일수를 계산해 현실적으로 보장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보편적 지원에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그야말로 전 국민에 지급돼야 한다는 당위를 말했고, 정부가 생각하는 상위 소득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의원들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대체공휴일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與 단독 소위 통과…野 “차별 안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야당이 불참한 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배제한 점 때문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겹치는 주말 직후 평일이 공휴일이 되는 식이다.

하지만 전 국민이 대상이던 애초 발의 법안들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30인 미만은 내년으로 적용이 유예된다. 여야의 공감대에도 쉽게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치 않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해서다.

정부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민주당의 공언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결정으로 추진하고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등 정비를 하지는 제안을 했다. 국민의힘도 올 하반기 공휴일은 대통령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국회 환경

노동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다뤄 종합적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와서인지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현행 근로기준법에 맞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대안을 단독처리했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360만 명 근로자를 배제하는 건 ‘국민 공휴일’ 취지에 반한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진보 진영인 정의당에서도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나서 “1600만 명 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은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됐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쉬는 날까지 차별과 배제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 쌍용차 2차 협력사, 70억 한도로 보증 지원 받는다

## 산업부 등 250억 추가 조성 대출 쉽도록 심사요건 완화

쌍용차 2차 협력사도 정부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1차 협력사에만 제공하던 지원을 2차까지 확대했고 보증 한도도 최대 70억 원으로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도,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쌍용차 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250억 원의 추가 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가 50억 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25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7월 초부터 쌍용차 협력업체에 지원한다.

조성된 자금은 신보가 운영 중인 쌍용차 협력업체 우대 보증 프로그램 500억 원과 통합해 총 75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신보는 이 출연협약에 앞서 쌍용차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일감 급감과 고용유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한 자금부터 본격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2차 협력사까지 확대됐다. 지난 1월 마련한 쌍용차 협력업

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50여 개의 쌍용차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만 운영됐다.

최고 보증 한도도 기존 3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늘었고, 경기도에 있는 기업엔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확대한다.

또 쌍용차의 위기로 인한 일시적 경영악화로 그동안 대출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등에 대한 심사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회생 기간 중에도 부품공급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판단하에, 쌍용차 부품 협력업체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해 왔다. 회생신청 시점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신규대출-만기연장 등 2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은 중앙정부와 쌍용차 소재지(평택)인 경기도가 협력해 심사기준 완화 및 2차 협력사 지원 등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회생 기간에도 부품공급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2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쌍용차 협력 업체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 한은 "금융 불균형으로 대내외 충격시 집값 폭락"

### 생산자물가 6.4% 급등 '9년 9개월 만에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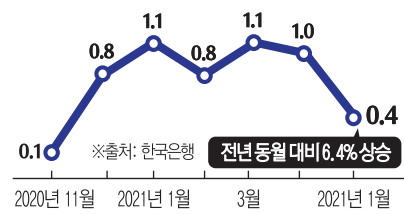
부동산값 폭등과 '빚투' 열풍으로 차입투자급증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한은은 22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 2021년 6월' 자료에서 금융 불균형 누증에 따른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가 지난해 1분기 이후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주택가격과 신용 규모가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금융 불균형을 완만히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 선행지표 중 하나인 생산자물가가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일 고공행진이다. 생산자물

생산자물가증감추이 (단위: %) ※전월대비 기준



가의 근원인플레이션이라 할 수 있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물가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 전방산업 수요증가,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 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6.4% 오른 108.50(2015년 100 기준)을 기록했

다. 이는 2011년 8월(6.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며, 지수 기준으로는 전월(108.06)에 이어 2개월 연속 최고치다.

전월 대비로는 0.4% 올라 7개월째 올랐다. 이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록한 7개월 연속 상승 이래 4년 3개월 만에 가장 오래 오른 것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물가도 전년 동월보다 6.1% 상승한 108.65를 보였다. 이 또한 2011년 6월(6.5%) 이후 최고치이며, 지수 기준으로는 전월(108.12)에 이어 사상 최고치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이 10.9% 올라 2011년 4월(11.5%) 이후 가장 높았다. 경유(72.9%)와 나프타(106.8%) 등을 중심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이 77.2% 급등했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중국발 악재에 비트코인 급락 22일 가상화폐 시장이 중국 정부의 단속 강화 움직임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앞서 중국은 채굴 금지와 '알리페이'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서울 빙썬 강남센터에 설치된 모니터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 델타 변이주 확산 "접종으로 통제 가능"

### 변이 바이러스 261명 추가...접종 후 확진 '돌파감염' 11명

본격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를 앞두고 변이 바이러스 공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영국·인도에서 유행 중인 델타 변이주가 국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2일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 추가로 확인된 주요 변이주 확진자는 261명"이라며 "바이러스 유형별로 알파형이 223명, 베타형이 2명, 감마형이 1명, 델타형이 35명"이라고 밝혔다. 감염경로별로 34명은 해외유입, 227명은 국내발생이다. 국내발생 신고지역은 경기(35건), 서울·대구(각 25건) 순이다.

그나마 해외에 비해선 변이주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는 5월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인 확진자 대비 5~10%보다 높은 15.6%의 바이러스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며 "주요 변이주 검출 비율은 39.6%"라고 설명했다.

영국·인도를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델타형의 국내 검출률은 1.9%로, 해

외유입(37.0%)의 20분의 1 수준이다.

방대본은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해 델타 변이주 확산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단장은 "델타 변이는 지금 인도와 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국형인 알파 변이보다는 1.6배 전파력이 높고, 입원율은 2.26배 높은 것으로 보고돼 있다"며 "전반적으로는 알파 변이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2차 접종을 완료하면 60~88%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방접종 14일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누적 31명이 확인됐다. 화이자 접종자가 20명,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자는 11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31명 중 11명은 돌파감염으로 확정됐다. 단, 현재까지 위·중증과 사망·접촉에 의한 추가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단장은 "돌파감염은 드물게 발생하고, 백신을 통해 중증을 예방하고 추가 전파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고객 한 분 한 분의 맞춤 금융이 가능해지는  
**저축은행 최초 마이데이터 사업 승인**

고객의 니즈에 딱 맞는 금융서비스를 알아서 제공하는  
**웹캠 개인화 솔루션**

NO.1 디지털뱅크 저축은행  
**웰컴디지털뱅크**  
웰컴저축은행

\*저축은행 부문 누적 평균점수 다우존스 1위 (2020년 12월 기준)  
\*저축은행 부문 누적 평균점수 다우존스 1위 (2020년 12월 기준)  
발간처: 매일경제신문 2021년 6월 23일 40면



# “피차이 리더십 불만” 구글 떠나는 임원들

### “인사·경영 결정 우유부단” 비판 지난해 이후 36명 부사장 퇴사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사진)가 ‘호사다마’의 상황에 놓였다. 구글은 매 분기마다 어닝서프라이즈를 연출하면서 매출과 순이익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시가총액은 1조6000억 달러(약 1813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는 피차이 CEO의 리더십과 인사 정책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 인터뷰에 응한 15명의 전·현직 임원은 “구글이 현재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관료제를 비롯해 대기업이 직면한 함정에 빠졌다”며 “여기에는 부드럽고 겸손한 피차이 CEO의 리더십이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피차이 체제가 주요 사업과 인사 이동에 있어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고, 그 결과 내부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구글에서 15년간 근무하고 3월 퇴사한 세자르 센굽타 전 부사장은 “피차이 CEO는 거의 모든 결정을 제대로 내렸다”면서도 “그가 더 빨리 결정을 내리면 더 행복했을지라는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피차이 CEO는 6년 전 구글에 합류했다. 그가 구글 수장으로 있는 동안 직원 수는 2배 늘어난 약 14만 명이 됐다. 모기업 알파벳의 시총은 3배로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최소 36명의 부사장이 회사를 떠났다. 경영진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으며 400명 관리자들을 통솔하는 부사장급에서 이렇게 많은 이탈이 일어



난 것은 심각한 두뇌 유출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임원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모험을 싫어하는 안정 지향적인 피차이의 성향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급변하는 실리콘밸리 업계 특성상 필요에 따라 더 과감한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글은 2018년 켄트 워커 법률 고문을 글로벌 기업지원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는데, 이후 그의 후임을 찾지 못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전자상거래에서 아마존에 도전하고자 이커머스 신흥강자인 쇼피파이를 인수하는 제안이 몇 년 전 나왔지만, 당시 피차이 CEO는 너무 비싸다며 이를 거부했다. 쇼피파이 주가는 수년 동안 10배 폭등했다.

구글에서 16년간 근무한 데이비드 베이커 전 엔지니어링 부문 이사는 “다양성 문제에 관한 구글의 부족한 용기는 궁극적으로 업무에 대한 열정을 상쇄했다”며 “구글은 재정적으로 안전할수록 위험 회피 현상도 커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러한 반응에 반대 입장도 있다. 구글 대변인은 “부사장 퇴사율은 지난 5년간 꾸준히 하락세를 유지했다”며 “피차이 CEO의 리더십에 대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도 긍정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00@

# 몽칫돈 물리는 美, 中과 격차 더 벌린다

### “작년 40% 급감했던 투자, 올해 코로나 회복하며 15% 증가 예상”

해외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나 강하게 반등하면서 올해와 내년 세계 최대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유엔의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0~15%, 내년에는 20~30%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FDI가 전년 대비 33%가량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반등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금이 미국을 포함한 북미로 쏟아질 전망이다. 이 지역의 FDI는 올해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해 40% 급감해 2위인 중국의 추격을 허용했는데 올해 다시 1위로 복귀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의 FDI가 살아난 배경으로 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가 꼽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자국의 경제성장률을 7%로 전망했다. 6조 달러(약 67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2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가계 잉여 저축도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경제 활동 재개와 함께 급증한 수요에 발맞춰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후주 철강업체 블루스크프스틸의 마크 바셀라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경제가 굉장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자동차 제조업체, 건설 회사 등에서의 수요가 대폭 증가해 시설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루스크프스틸은 7억 달러를 투자해 오하이오주에 있는 제철 공장에 용광로와 캐스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서 내년 초 철강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연간 85만 톤을 더 생산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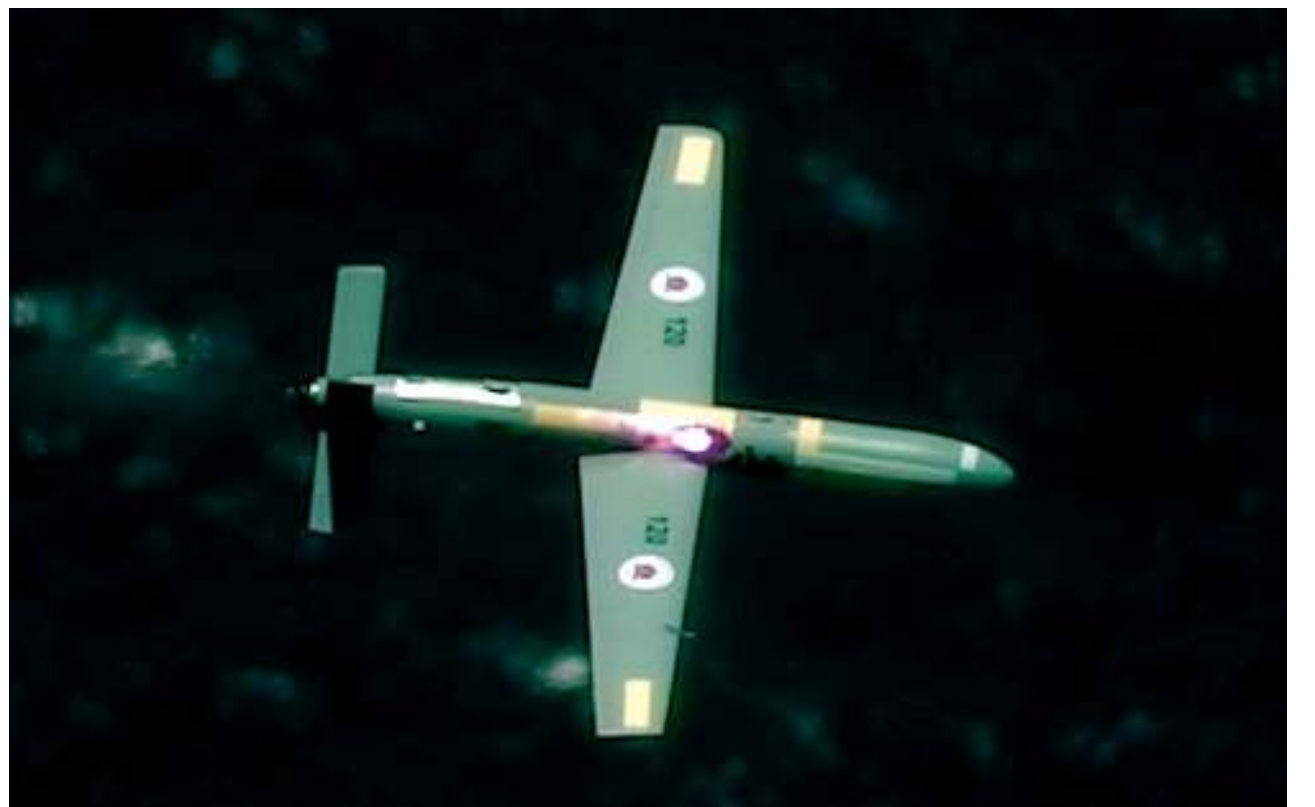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 기업들도 미국 투자를 늘린다. 스위스 네슬레푸리나벤텐어는 급증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오하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신규 공장 건설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알렉시온파마슈티컬스를 390억 달러에 인수했다.

다만 FDI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들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 체계 개편도 그중 하나다.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얼마나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타국에 대한 안보 및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필수 분야의 해외투자를 거부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필수 의료장비 등 특정 제품의 해외 생산을 줄이고 자국 내 투자를 독려하는 분위기다.

김서영 기자 0jung2@



이스라엘, 레이저로 드론 격추 드론이 공중에서 레이저 공격을 맞아 격추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공중에서 발사되는 고출력 레이저로 드론을 격추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100킬로와트(KW)의 레이저 빔을 사용해 비행 중인 목표물을 격추하는 신기술이다. 이스라엘 국방부 연구개발 담당자 아니브 로템 예비역 준장은 “소형 민항기에 탑재한 레이저 시스템 시제품을 통해 여러 무인기를 격추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 아마존 브랜드 가치 ‘세계 1위’

### 작년대비 64% 증가한 774兆... 삼성, 53兆로 42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1위 자리를 지켜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만이 유일하게 브랜드 순위에 들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시장조사 업체 칸타(kantar)가 분석한 ‘2021년 가장 가치 있는 글로벌 브랜드’ 보고서에서 아마존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64% 늘어난 6839억 달러(약 773조 9012억 원)로 추정되면서, 3년 연속 세계 1위 왕좌를 수성했다.

애플이 6120억 달러로 2위를,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4580억 달러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4103억 달러) △텐센트(2409억 달러) △페이스북(2267억 달러) △알리바바(1969억 달러) △비자(1913억 달러) △맥도날드(1549억 달러) △마스터카드(1129억 달러) 등이 ‘톱10’ 안에 랭크됐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보다 44% 증가한 468억 달러(약 53조 1180억 원)로 집계됐으며, 전체 100대 브랜드 중 42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10위권 내 명단에서 중국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브랜드가 자리를 꿰찼다. 전체 100대 브랜드를 살펴봤을 때도 미국 브랜드가 74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순위	브랜드	가치(달러)
1	아마존	6839억 달러
2	애플	6120억 달러
3	구글	4580억 달러
4	MS	4103억 달러
5	텐센트	2409억 달러
...	...	...
42	삼성	468억 달러

올해에는 중국 브랜드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중국 브랜드들은 전체 100대 브랜드 가운데 14개를 차지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체 핀둬둬,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탄, 중국 명주 대명사 마오타이,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은 그들의 가치를 1년 새 두 배 이상 높였다.

칸타 브랜드Z의 글로벌 전략 책임자인 그레이엄 스테이플허스트는 “중국 브랜드가 꾸준하고도 서서히 발전하고 있으며, 상당한 발전을 이뤄냈다”며 “더 많은 기업이 그들의 자신의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중국과 세계 시장을 형성하는 주요한 추세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인도의 타타컨설팅서비스(58위)와 일본 도요타(64위) 등이 100대 브랜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선 기자 hsbun@

# 美·EU ‘항공기 강제착륙’ 벨라루스 경제제재 합의

### 주요 외화 수입원 차단... 국방장관 등 개인·기관 이동제한 자금동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야권 인사 체포를 위해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벨라루스에 동시다발적인 제재를 부과, 숨통 조이기에 들어갔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과 EU, 캐나다, 영국은 벨라루스에 자국민을 겨냥한 억압적인 행위를 끝내고 5월 발생한 여객기 강제 착륙(사진) 관련 조사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면서 제재를 가했다.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벨라루스 정권의 주요 외화 수입원 차단에 합의했다. 석유, 탄산칼륨, 금융 부문을 제재하기로 했다. 지난 4일 벨라루스 모든 항공사의 EU 역내 영공 통과, 공항 접근을 금지한 데 이어 경제 제재를 추가한 것이다.

또 여객기 강제 착륙에 직접 개입한 벨라루스 국방장관과 교통장관 등을 포함, 개인 78명과 8개 단체를 대상으로 이동제한과 자금 동결도 부과했다.



앞서 옛 소련 국가 벨라루스의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자국 야권 인사 라만 프라타세비치를 체포하기 위해 아일랜드 항공사 라이언어에 여객기를 전투기까지 동원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공항에 강제 착륙시켰다. 착륙 직후 프라타세비치는 체포됐다.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벨라루스가 정적을 구금하기 위해 항공기를 납치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합의로 벨라루스에 대한 EU의 제재 대상은 개인 166명, 단체 15개로 늘어났다. EU는 지난해에도 루카셴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 탄압을 이유로 루카셴코 대통령을 포함해 벨라

루스 인사 88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EU에 발맞춰 미국, 영국, 캐나다도 동시 제재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벨라루스 관리 46명의 입국을 금지했다. 재무부도 개인 16명과 5개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영국 정부는 벨라루스 원유 제품 수출업자를 포함한 개인 7명과 단체 1곳을 제재했다. 서방사회의 ‘베네수엘라식’ 제재 발표 이후 벨라루스의 달러화 표시 국제 가격은 5% 가까이 폭락했다.

베네수엘라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2017년 불법 정치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새 제재를 부과하면서 베네수엘라 채권 거래를 금지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영 석유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90일물 이상 채권과 주식, 베네수엘라 공기업이 보유한 일부 채권이 그 대상이었다. 니콜라스 마두로 독재 정부의 자금줄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김서영 기자 0jung2@





# 누구에게나 내 집 마련 기회는 연리지홈



**적은 돈으로 빠르게 내 집 장만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처음 살 땐 시세의 반의 반값으로 사고  
20~30년 동안 나눠서 갚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걱정없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세상!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연리지란?**

뿌리가 다른 나무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으로  
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SH가 연리지의 가치처럼 함께하는 정책임을 표현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 HOME

- 국내 최초 지분적립형 주택  
2028년까지 서울에 1만 7천호 공급
- 반의 반값 아파트  
시세의 80%내외 X 지분율 20~40%로 저렴 분양
- 4년마다 형편에 맞게  
4년마다 15~20%씩 형편에 맞게 지분 추가 획득
- 처분 자유, 언제든지 매각  
개인의 판단에 따라 지분전체 제 3자에게 매각가능
- 장기 보유, 자산형성 지원  
처분시점의 지분비율대로 금액분할

**SH의 [생애주기별] 신개념 주택정책 브랜드**

생애주기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청년에서 노년까지 전 세대 맞춤형 주택 공급체계 구축		
2030세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b>청신호</b> SMART HOUSING	청년과 신혼부부의 호~움 청신호
2030세대 청년창업가	<b>ablub</b> 에어블럽	청년 창업지원 도전속 시즌2 에이블럽
3040세대 무주택세대	<b>연리지</b> HOME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5060세대 노후세대	<b>누리재</b>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누리재

## 서울시민을 위한 신속한 주택공급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시즌 II  
상생주택으로 7만호 공급!**

SH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정책 도입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공급!**

소규모 필지를 모아 용적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형 재건축사업



# 업계 '즉시연금' 잇단 패소에 교보생명 변호인단 바꿔 반격

'생명보험사 빅3'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변호인단을 바꿔 반격에 나섰다.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김앤장을 내세운 보험사들이 줄패소하자, 법무법인을 바꿔 분위기 전환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삼성생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김앤장을 선임한 상황이라, 이후 판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항소심 대리인을 김앤장에서 홀출으로 변경해 지난 18일 항소장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재판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 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도 동양생명 이어 세 번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3대 대형 생명보험사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도 동양생명도 모두 항소했는데, 이들 법무법인 모두 김앤장이 맡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기존 태평양에서 항소 때 김앤장으로 변경했으며, 동양생명은 기존과 같이 항소 때도 김

2017년 11월	본조위, 삼성생명 과소 지급 즉시연금 지급 결정
2018년 2월	삼성생명, 본조위 결정 수용 및 보험금 지급(본쟁조정 신청자 1명)
3월	금감원, 전 생보사에 관련 사안 동일 처리 통보
7월	삼성생명, 이사회서 미지급액 일괄 지급 거부
9월	즉시연금 피해자, 보험사에 공동소송 제기
2021년 6월	미래에셋, 동양생명, 교보생명 패소(삼성생명 7월 21일 예정)

## 앞서 패소한 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도 법무법인 교체 4300억 최고 분쟁액 걸린 삼성생명 다음달 21일 판결

앤장을 선택했다.

주목되는 건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일각에서는 생보사들이 줄패소하자 이러한 흐름이 삼성생명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삼성생명도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없어 불리하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생명 측은 상품설명서 등에 충분히 명시했다는 점을 들어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명시됐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1심 판결 날짜는 7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즉시연금 분쟁은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덜 받은 연금액을 내놓으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태로 보험금이 매달 지급되는 상품이

다. 보험사는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 월액 일부를 공제했는데, 가입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설명도 없었다며 당국에 민원을 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해 소송전이 시작됐다. 신한생명과 AIA 생명 등은 본조위 조정을 수용하거나 소송을 중도에 포기,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 8000억~1조 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가량이다.   
서지연 기자 sjy@



우리금융, 코로나 극복 '사랑의 헌혈 캠페인'

우리금융그룹은 혈액보유량 감감으로 재난, 대형사고 등 국가위기 상황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혈액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자 전 그룹사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손태승(가운데) 우리금융그룹 회장, 권광석(왼쪽 두번째) 우리은행장, 박필준(왼쪽 네번째)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등이 캠페인 첫날 우리은행 본점 주차장에 설치된 헌혈 버스를 직접 찾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금융그룹

## KB국민카드, 인도네시아 사업 확장

### 자회사 KB FMF에 340억 투입 현지 자동차·오토바이 할부 주력

KB국민카드가 인도네시아 자회사에 약 34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본격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주춤했던 해외 수익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PT KB 파이낸시아 멀티 파이낸스(PT. KB Finansia Multi Finance, KB FMF)가 발행하는 조건부 신증자본증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다음 달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KB국민카드는 2019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여신금융전문화사 KB FMF의 지분 80%를 약 879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KB FMF는 1994년 설립된 인도네시아의 5위권 여전사로,

리스와 자동차·오토바이 할부업을 주력으로 한다. '크레디트플러스'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모바일 금융서비스 영역에도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 FMF는 인도네시아 사업 확대에 따라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이번 조건부신증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 조건부신증자본증권을 영구채 형식이며 만기는 30년이다.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중도 상환 옵션이 부여된 조건으로 발행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의 승인을 득한 경우 중도상환하거나 보통주 자본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KB국민카드는 매입하는 영구채 규모는 341억4750만 원으로, 지급보증돼 있던 금액을 대역금으로 전환하는 형식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지 자회사의 자산 성장에 따라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규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 지급보증돼 있던 금액을

대역금으로 바꾼 것"이라며 "자산 성장에 따라 지급보증돼 있던 걸 영구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치를 키운 KB FMF는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모델을 고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 초 KB국민카드는 인도네시아 등 신규 진출 지역에 대한 안정화 및 본격적인 수익을 실현한다고 밝힌 바 있다.

KB FMF는 세계은행(WB) 산하 기관인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에서 50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조달비용을 절감해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시하고, 현지 고객들의 특성에 맞춘 할부금융 상품을 확충해 우량 자산 중심의 영업을 펼치고 있다.

또, 자동차 딜러를 중심으로 영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지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와 제휴해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영업 채널도 확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P2P, 대출 비교 플랫폼 진출

### 온투업 등록 3사, 판로 확대 인터넷銀 중금리 경쟁 가세 8월말까지 미등록업체 폐업

개인 간 금융(P2P) 업체들이 새로운 영업 판로를 열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에 성공한 업체들이 대출 비교 플랫폼 입점을 고려하면서다. 온투업 시행 후 주춤했던 P2P 시장이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된 렌딧, 에이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사 모두 대출 비교 플랫폼과 업무 제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이들 업체 중 일부는 대출 비교 플랫폼에 입점할 예정이다. 대출 비교 플랫폼은 사용자의 직장, 연봉, 재산 상태 등 정보를 받아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다. 토스, 카카오뱅크, 핀다, 페이코 등이 대표적인 대출 비교 플랫폼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러 회사(대출 비교 플랫폼)와 (입점과 관련해)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온투업계의 비교 플랫폼 진출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P2P가 해당 플랫폼에 입점하면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이 부결된 사람도 비교 플랫폼에서 P2P를 통해 투자자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중·저신용자 대상의 대출을 지난해보다 2조5470

억 원 더 늘리겠다고 밝힌 만큼 중금리 대출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때 중·저신용자는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P2P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P2P 업체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것보다 접근성은 좋지만 수수료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P2P 업체는 대개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는 건수마다 플랫폼에 중개료를 지불한다. 이렇게 대출에서 플랫폼이라는 한 단계를 더 거치면서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소비자에게 수수료 등의 형태로 전가된다. 중개상이 많을수록 물건값이 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다.

한편 P2P 업체들은 온투업자 등록이 늦어지면서 사업장 폐지까지 얘기가 나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상 8월 26일까지 온투업자로 등록하지 못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온투업자 신청서를 제출한 지 6개월 만에 정식 온투업체 3곳이 나오면서 이런 우려는 종식됐다.

정식 온투업자로 가장 먼저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한 곳은 8퍼센트다. 8퍼센트는 10일 개인 신용 대출 상품 등 다수의 상품을 출시했다. 피플펀드컴퍼니는 데이터 이관, 행정 실무 절차들을 마무리한 후인 14일부터 신규 대출을 진행했다. 렌딧은 4월 신규 대출 중단 이후 현재까지 신규 대출 상품을 모집하고 있지 않다. 렌딧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 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어 점검 기간을 뒀다"며 "곧 신규 투자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수빈 기자 bean@

## 보이스피싱 사기에 '현금 인출'도 포함

### '통신금융사기 방지법' 개정안 발의

피해자를 속여 예금을 인출해 자금을 건네받는 식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급증하자 '현금 인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통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관련 법에 따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방식에 대해서만 사기 행위를 한정하고 있다.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이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기 피해에 연루됐을 때 송금이나 이체하는 방식이 아닌, 현금을 꺼내 전달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조건을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관련법에서 '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로, '피해금'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취 대상이 이체·송금으로 한정되면서 현금 인출 방식의 피해는 계좌 정지, 전화번호 이용 중단 등의 제한 조치에서도 적용되지 않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해당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도 '이체·송금'이란 정의에 따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등의 지급정지 요청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계좌이체 방식의 수법이 어려워지자 대면 편취 등 다른 형태의 범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244건이던 대면 편취 적발 건수는 작년 1만5111건으로 5배 수준이 됐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3분의 1 수준(2019년 3만517건→2020년 1만596건)으로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로 인해 대면 편취 방식도 보이스피싱의 범주로 인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2조 중 '이체'를 '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로 정의를 변경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현금 인출 방식을 통한 범죄도 전자금융사기로 규정돼 지급 제한 조치가 발효될 수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대면)편취 수법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 개정으로 신·변종 수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jinsan@



# '5G 新무기' 꺼낸 삼성, 화웨이 빈자리 노린다

신규 기지국용 핵심칩 3종 공개  
속도 2배 향상·소비전력 50% ↓  
5G 가상화 기지국 솔루션 첫선

회사	점유율
화웨이	31%
에릭슨	29%
노키아	18%
ZTE	11%
삼성전자	7%

삼성전자가 22일 공개한 5G(5세대 이동통신) 신규 기술 및 솔루션은 속도는 높이는 동시에, 소비 전력과 크기를 줄인다는 방향성을 갖췄다.

신규 기지국용 핵심 칩은 △2세대 5G 모뎀칩(5G Modem SoC) △3세대 밀리미터 웨이브 무선통신 칩(mmWave RFIC) △무선통신용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통합 칩(DFE-RFIC Integrated Chip) 등 3종이다.

'2세대 5G 모뎀칩'은 기존 대비 데이터 처리 용량은 2배로 늘리면서도, 셀(Cell) 당 소비전력은 절반으로 줄였다. '3세대 밀리미터 웨이브 무선통신 칩'은 안테나

크기를 약 50% 줄일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탑재했다.

'무선통신용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통합 칩'은 지원 주파수 폭을 최대 2배 늘리고 기지국의 무선 신호 출력을 높이면서도 소형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핵심 칩 3종 제품은 2022년 출시되는 차세대 고성능 기지국 제품군에 탑재된다. 해당 제품군엔 △'3세대 듀얼밴드 콤팩트 매크로(Dualband Compact Macro)' 기지국 △'다중입출력 기지국(Massive MIMO Radio)' △'원 안테나 라디오(One Antenna Radio)' 솔루션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 5G 통신 장비 수주 현황

국가	회사	시점
한국	SKT, KT, LG U+	2018년 9월
	US셀룰러	2018년 2월
미국	스프린트	2018년 5월
	AT&T	2018년 9월
	버라이즌	2020년 9월
일본	KDDI	2019년 10월
	NTT도코모	2021년 3월
캐나다	비도트론	2019년 12월
	텔러스	2020년 6월
뉴질랜드	스파크	2020년 3월
	사스콤	2021년 3월
영국	보다폰	2021년 6월

'3세대 듀얼밴드 콤팩트 매크로 기지국'은 업계 최초로 2개의 초고주파 대역을 동시에 지원하고, '다중입출력 기지국'은 400MHz 광대역 폭에, 새로운 방열 기술

을 적용해 소비 전력을 대폭 낮췄다.

'원 안테나 라디오(One Antenna Radio)' 솔루션은 3.5GHz 대역을 지원하는 대용량 다중입출력 기지국과 700MHz 대역부터 2.6GHz 대역을 지원하는 수동형 안테나를 통합해 망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 밖에 초고속 5G 상용망에도 적용할 수 있는 '5G 가상화 기지국(vRAN)' 솔루션도 첫선을 보였다.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가 5G 신규 기술을 무기로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 건, 미국의 압박으로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세계 1위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과 한국 통신 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7조9000억 원) 계약을 성사한 이후, 올해 3월에도 캐나다 사스콤, 일본 NTT도코모에 5G 이동 통신 장비 공급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중순엔 영

국다국적 통신사업자인 보다폰 5G 가상화 기지국(vRAN) 분야 핵심 공급사로 선정됐다. 화웨이 통신장비 영토를 삼성이 점령한 것으로 업계는 의미를 부여했다.

전정훈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장(사장)은 "급성장하고 있는 5G 시장에서 이미 4G 사업 계약 건수보다 더 많은 사업 계약을 수주했다"며 "전 세계 400만 대 이상의 5G 기지국을 공급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년 이상의 자체 칩 설계 경험과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역량을 바탕으로 5G 시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측은 "최근 테라헤르츠 데이터 통신에 성공하는 등 6G 기술 투자에도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며 "6G 시대가 도래하면 확장 현실, 초고해상도 렌더링, 디지털 복제 등 사용자의 손끝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우리 기자 we1228@



## 아반떼 'N 라인' 합류 현대차, 디자인 티저 공개

현대자동차 고성능 브랜드 N이 해치백과 SUV에 이어 세단으로 제품군을 확장한다. 현대차는 4월 발표한 고성능 SUV 코나 N에 이어 고성능 세단 모델 '아반떼 N' (사진)의 디자인 티저를 22일 공개했다.

아반떼 N은 지난해 4월 출시한 '올 뉴 아반떼'의 고성능 모델로 기본 모델이 지닌 날렵한 인상에 강인하고 역동적인 주행 감성을 더했다.

아반떼 N의 측면부는 공기의 흐름을 정돈해주는 대형 사이드 스커트를 적용해 공격성을 끌어올렸고, 이와 함께 음각 N 로고가 새겨진 N 전용 레드 스트립이 더 낮고 속도감 있는 이미지를 완성했다. 후면부는 트렁크 위에 N 전용 왕타입 스포일러를 적용해 주행 시 차량 뒤쪽에서 발생하는 공기 와류현상을 줄이고 고속에서 차량이 뜨는 양력현상을 억제해 주행 안정성을 향상했다. 또한, 리어 디퓨저와 대구경 듀얼싱글 머플러가 고성능차만의 차별화한 인상을 매듭짓는다. 유창욱 기자 woogi@

## KCC, 車보수용 수성 도료 출시

KCC가 고품질의 자동차 보수용 수성 도료를 출시했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된 자동차 부위에 판금 수리 시공을 한 뒤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를 말한다.

KCC는 22일 자동차 보수용 수성 도료 'WT500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WT5000은 자동차 도장 과정에서 전처리 후 색상을 입히는 베이스 코트(Base Coat) 제품이다.

이 제품은 물을 주 용제로 사용한 수성 페인트로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한 친환경 제품이다.

공장에서 조색을 완료해 출고하는 레디믹스드(RM) 제품인 WT5000은 신차와 같은 색상을 그대로 제품화한 것이다. 보유 색상은 205종이다. 국내·외 인기 차종 색상을 구현할 수 있다. 김대영 기자 kdy@

〈리튬이온배터리〉

## “배터리 혁신기술, LIB 대체보다 보완 가능성”

**LG엔솔 '이노베이션 포럼'**

“(배터리) 혁신 기술들은 리튬이온배터리(LIB)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할 가능성이 크다.”

정근창(사진)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연구소장(부사장)이 22일 LG에너지솔루션이 개최한 '이노베이션 포럼 2021' 기조 강연에서 “리튬이온배터리의 지속적인 개선은 현재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할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소장은 “2차 전지는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리튬이온배터리는 지난 30년 동안 지속해서 개선됐고 이제 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

**정근창 부사장 “생산공정 등 혁신 리튬이온배터리 한계 극복 수단”**

휘팅엄 교수 “NMCA 우세 할 것”

(ESS)의 주요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료와 생산 공정의 수많은 혁신은 비용, 에너지, 밀도, 내구성 등 측면에서 리튬이온배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자동차와 ESS를 위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몇 가지 첨단 화학물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롭고 더욱 도전적인 요구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며 “리튬이온 배터리를 넘어 새로운 전기화학 에너지

정근창 부사장

저장 장치를 위해 계속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연구소장은 자동차전지 분야 셀 개발 전문가로 2017년 고에너지 밀도·급속충전 셀 개발을 주도했다. 스탠리 휘팅엄 미국 뉴욕주립대 석좌 교수의 강연도 이어졌다.

휘팅엄 교수는 2019년 리튬이온 전지의 핵심 원리인 '인터칼레이션(Inter-cation) 전극' 원리를 발견한 공로 노벨상을 뒀다. 인터칼레이션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리튬이 흑연층 사이에 삽입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휘팅엄 교수는 '배터리 연구·개발 개요'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향후 5~10년

동안 리튬 인터칼레이션 시스템이 지배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NMCA 배터리가 우세하겠지만 코발트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NMCA란 니켈·망간·코발트·알루미늄 등 소재로 양극재를 구성한 배터리를 말한다. 기존 NCM 배터리에 알루미늄을 추가하고 코발트의 비중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다. 올해 하반기 본격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휘팅엄 교수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해질이 필요하다”면서도 “고체 상태 전해질이 필요한 전력 밀도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금호석화, ESG·내부거래·보상위 공식 출범

### 이사회 산하 설치·세부규정 제정 NB라텍스 24만톤 증설 결정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내 신설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가 출범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이들 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하고 인원 구성과 권한 등 세부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3개 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사외이사가 맡는다. 위원회 운영과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ESG위원회는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으로는 박순애 사외이사, 최도성

사외이사, 이정미 사외이사, 백종훈 사내이사 등 총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장은 박순애 사외이사가 맡는다.

ESG위원회는 적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ESG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추진 성과를 관리하면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한다.

내부거래위와 보상위도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서 꾸러진다. 내부거래위는 이정미 사외이사, 정용선 사외이사, 황익석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위원장직은 이정미 사외이사가 맡게 됐다. 내부거래위는 계열사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이해 상충을 감시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상위는 이재경 사외이사, 박순애 사외이사, 정용선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재경 사외이사가 맡는다. 보상위는 경영진의 보상이 성과와 연동되도록 하고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박찬구 회장이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직 사임을 발표하면서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선포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이사회에서 NB라텍스 24만 톤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투자비는 총 2560억 원이다. 2023년 말 증설이 완료되면 올해 연말 완성되는 71만 톤에 더해 총 95만 톤의 NB라텍스 생산능력을 갖추게 돼 NB라텍스 생산능력 1위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영 기자 kdy@

## LG, AI 탑재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 출시

### 판독시간 단축·병변 발견 확률 ↑

LG전자가 인공지능(AI) 진단 보조 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DXD)'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제품은 '영상획득 소프트웨어'와 하드

웨어인 '엑스레이 검출기'로 구성된다. 고객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구매할 수도 있고, 패키지 구매도 가능하다.

영상획득 소프트웨어에는 의료용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뷰노의 인공지능 진단 보조 솔루션이 적용됐다. 이는 의료진이

결핵, 폐렴, 폐암과 같은 주요 폐 질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판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병변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도 높인다.

LG전자가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에 인공지능 기능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는 기존 아날로그 엑스레이와 달리 필름이 필요 없다. 노우리 기자 we1228@



## “영화보면서 신발 관리 받으세요” 삼성 '슈드레서' 체험마케팅 강화

삼성전자는 신발관리기 '비스포크 슈드레서'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마케팅(사진)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CGV 용산아이파크몰 '스카이박스(SKYBOX)'에는 관람객들이 영화를 즐기는 동안 신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비스포크 슈드레서를 설치했으며, 비스포크 에어드레서·큐브 냉장고·큐브TM Air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꾸몄다.

삼성전자의 라이프스타일 가전제품들을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신라호텔의 체험형 객실인 '익스퍼리언스 룸(Experience Room)'에도 비스포크 슈드레서를 추가했다. 안성베네스트골프클럽에도 비스포크 슈드레서 체험존이 마련됐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비스포크 슈드레서를 집에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최대 14일간 제품을 대여해주는 '투고(To-Go) 이벤트'도 진행한다. 권대성 기자 tskwon@



# 전고점 돌파 앞둔 신조선가 ‘기대반 우려반’

신조선가지수 6개월째 올랐지만  
수주실적 반영 통상 1~2년 소요  
후판가격 인상 등 원가 부담  
“선가 인상, 장기적으로 긍정적”

신조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조선업  
호황기이던 2013~2014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 개선까지는 시차가 예상  
되는 데다 후판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22일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 클락슨리  
서치에 따르면 18일 기준 신조선가지수는  
138포인트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1포인  
트 올랐으며 2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말 125포인트와 비교하면 1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신조선가는 지난해 말부터 상승  
세다. 지난달 신조선가지수는 136.1포인  
트로 6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선종별로는 국내 조선사의 주력 선종 중  
하나인 VLCC(초대형 원유운반선)의 신  
조선가가 9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해 말 8500달러에서 1000만 달러 이상 올

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말의 9200만  
달러도 뛰어넘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VLCC 호가는 1억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 발주된 VLCC 41척 중 35  
척, 약 85%를 수주한 바 있다.

조선해운 전문매체 트레이드윈즈는  
LNG선 가격이 적당 2억 달러 수준까지  
급등했다고 전했다. 철강 가격 상승, 신주  
선박 수주 증가 등의 영향이다. 한국조선  
해양은 최근에도 LNG운반선 2척을 수주  
했다. 한국 조선사들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종에서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해운 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한 데  
다 선박 주문이 늘면서 선가는 꾸준히 오  
르는 모양새다. 1~5월 세계 누계 수주량은  
1907만CGT(표준선환산톤수)로 전년 동  
기 대비 179% 증가했다.

지난달 글로벌 선박 수주 시장에서 한국  
은 60% 가까이 휩쓸며 선두를 차지했다.  
국내 조선 3사(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  
양,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을  
은 벌써 70%를 넘어섰다.

지난해까지 저가 수주도 불사하던 조선

사들은 이제 충분한 일감을 확보해 지나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주문  
이 쇠대하면서 슬롯이 부족한 상태다.

다만 조선업계는 원가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철강사들과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  
에 돌입한 가운데 철광석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탓이다. 21일 기준 철광석(중국 칭  
다오항) 가격은 톤당 208.15달러로 200달  
러 이상을 지속하고 있다.

앞선 저가 수주의 여파로 실적 개선까지  
도 시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는 2분기 한국조선해양  
의 영업이익이 78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700억  
원, 41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주 실적이  
반영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2년은 걸린  
다”며 “단기적으로는 원가 인상 등이 부담  
이 되겠지만 선가 인상은 장기적으로 긍정  
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가격이 지  
속적으로 오른다면 오히려 주문 지연이 일  
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업계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 삼성, 28일 MWC 갤럭시 버추얼 이벤트

### ‘갤럭시 OS’ 베일 벗는다

구글 협업 호환성 문제 개선  
녹스 등 보안 신기술도 공개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  
회 ‘MWC(모바일월드포그레스)  
2021’에 온라인 이벤트를 열고 스마  
트워치의 미래 비전과 모바일 보안 신  
기술 등을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MWC 2021’에서 ‘삼성 갤럭시 버추  
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뉴스를  
을 통해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갤럭시 기기 생태계를  
소개한다.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  
을, 개발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  
할 스마트 워치의 미래 비전도 제시  
한다.

또 최근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  
는 스마트 기기 보안과 관련해 회사의  
최신 기술과 혁신 노력을 발표할 계획  
이다.

먼저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이번 행  
사에서 올 하반기 출시 ‘갤럭시 워치  
4’에 탑재될 새로운 웨어러블 OS(운  
영체제)를 소개할 것으로 관측한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갤럭시워치 시  
리즈에 자체 개발한 ‘타이젠 OS’를 고  
수해왔다. 다만, 타이젠은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보다 해당 OS를 사용하는  
콘텐츠가 부족해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협업으로 OS 호  
환성 부족을 해결했다. 갤럭시워치4  
에 탑재될 새 OS는 구글 안드로이드  
를 기반으로 해 갤럭시 제품과 호환성  
에서 더 뛰어나면서, 타이젠 장점인  
빠른 앱 전환과 향상된 배터리 효율이

결합할 것으로 보인다.

신형 스마트워치인 갤럭시워치4는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인  
증도 완료하며 제품 출시가 임박했음  
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갤럭시워치4  
는 이번 MWC 이벤트에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신제품은 8월 초  
열릴 예정인 갤럭시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 언팩 행사에서 함께 선보일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버추얼 이  
벤트에서 보안 기술과 관련해서도 충  
분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안은 모바일 업계의 화두  
다. 특히 경쟁사 애플은 폐쇄적인  
IOS를 활용한 자체 보안 기술과 철  
저한 보안 정책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자체 보안 솔루션인  
녹스(Knox)를 비롯해 보안 관련 신  
기술을 공개하고 경쟁력을 과시할 것  
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 스마트키보드 등 다양한  
갤럭시 제품들을 소개하고 이들 기기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갤럭시  
생태계의 감정도 공개할 전망이다.

이번 삼성전자 온라인 이벤트는 한국  
시간 29일 새벽 3시 15분부터 삼성전  
자 뉴스를, 삼성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  
계로 볼 수 있다. 한편, MWC 2021은  
‘커넥티드 임팩트’를 주제로 오는 28일  
부터 7월 1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에서 개최된다. 송영록 기자 syr@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문제는 타이밍!

SELL  
타이밍을  
알려준다

유안타증권 티레이더

홈페이지 www.myasset.com | 고객센터 1588-2600

※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거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5%(상해A 0.3%, 심천A 0.3%, 홍콩0.3%, 미국 0.3%(최소수수료75))등이고 모바일 주식매매수수료는 0.1%(해외주식 모바일 주식매매수수료는 [상해A 0.3%, 심천A 0.3%, 홍콩0.3%, 미국 0.3%(최소수수료75)]등이며, 기타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시스템으로서 수익달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0379호(2021.01.22~2022.01.21)

## 대우조선해양, 친환경 기술 개발 ‘글로벌 초협력’

15개 기관 산·학·연 협의체 결성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유수의 기관들과  
‘산·학·연’ 기술 협의체를 결성하고 조선  
해양산업 관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초협력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은 친환경 및 스마트십 기  
술 관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주요  
산업계, 대학 및 연구소와 ‘친환경 스마트  
선박 유체기술 글로벌 연구·개발(R&D)  
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해 협력 연구 활동  
에 첫발을 내디딘다고 22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주도하는 이번 협의체  
는 △대학 : MIT(미국), 서울대학교(한

국), 미시간대학교(미국), 스트라스클라  
이드대학교(영국) △선급 : ABS(미국),  
LR(영국), BV(프랑스), KR(한국),  
DNV(노르웨이) △연구기관 : SINTEF  
Ocean(노르웨이), SSPA(스웨덴),  
CNR(이탈리아), KRISO(한국), HSVA  
(독일) 등 국제적 명성을 가진 총 15개 기  
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R&D 동맹’이다.

이 협의체는 조선해양산업 관련 환경 규  
제와 자율운항선과 같은 최첨단 기술, 특히  
유체역학 분야의 핵심기술들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협력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글로벌 기술 선  
도를 목표로 한다. 이주혜 기자 winjh@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국가대표 수영 선수, 김서영

# 뛰어들자 내 꿈보다 작은 물이다

163cm, 수영선수로는 작은 키

신체적 한계는 잠시 잊는다  
나의 도전이 멈출 때까지

잘 봐! 물 만난 김서영이  
세계를 넘어서는 거

우리 김서영 선수를 위한  
우리의 함성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파이팅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디즈니플러스 상륙해도 국내 OTT 끄떡없다”

마블·픽사 등 자사 IP로는 한계 “亞 시장 성공 요건은 현지화”

연내 亞 가입자 5650만명 전망 디즈니, 국내 이통사 손잡을 듯

한국 진출이 예정된 디즈니플러스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성공하려면 독점적인 로컬(Local)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단 분석이 나왔다.

이에 국내 OTT 업계는 디즈니플러스의 진출이 당장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2일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MPA)’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디즈니플러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이달 18일 발표했다. 30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디즈니플러스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취하는 전략과 전망 등을 담고 있다.

올해 1분기 디즈니플러스의 글로벌 유

료 가입자는 1억360만 명으로 이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369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다.

MPA는 이달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디즈니플러스가 론칭되고, 4분기에 한국, 홍콩, 대만 등에서 서비스가 시작되면 올해 말 565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5650만 가입자 중 87%는 인도(73%)와 동남아시아(14%)가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디즈니플러스는 2019년 11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뒤 전 세계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지난해 3월 인도, 6월 일본, 9월 인도네시아 이후 올해 싱가포르 등까지 진출했다. 앞서 디즈니플러스는 올해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다. 외신들은 홍콩, 대만 등과 비슷한 시점인 올해 4분기 정도에 디즈니플러스가 한국에서 서비스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의 무기는 디즈니, 마블, 픽사 등 강력한 지식재산(IP)이다. 수년 간 다수 시대를 선보인 인기 IP를 뜻하는

프랜차이즈 IP로 충성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 같은 강점은 동시에 약점으로도 작용한다. 자사가 보유한 IP 위주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지역별 콘텐츠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인다. MPA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디즈니플러스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현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디즈니플러스의 한계로 불리는 이 점 때문에 국내 OTT 업계는 디즈니플러스의 진출이 당장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진단한다.

OTT 업계 관계자는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을 초기에도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며 “킹덤 등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국내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커졌듯, 디즈니플러스 역시 국내 콘텐츠에 대한 투자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꾸로 국내 OTT 업체들은 K-콘텐츠에 강점이 있는 OTT는 토종 업체라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CJ ENM 기자회견에서 이명한 티빙 대표는 해외 OTT 사업자와 비교해 티빙만의 강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국내 OTT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포지셔닝 하려면 ‘K-콘텐츠’ 맞잡이라는 포지션 없이는 힘들 것”이라며 “저희는 한국 대중의 입맛에 맞는 제작 집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즈니플러스는 국내 통신사들과 제휴 협상을 벌이며 한국 론칭을 구제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신 3사 중 독자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키우지 않는 LG유플러스가 유력한 파트너사로 꼽힌다. 디즈니플러스는 올해 1분기 상반기 싱가포르 진출 당시 싱가포르 2위 통신사와 손잡았고, 이달 30일 태국에서 서비스를 준비하면서도 현지 통신사와 제휴를 맺었다.

MPA는 “대부분 지역에서 디즈니플러스는 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맺어 고객을 끌어들이는” “이를 통해 구독자 이탈을 막는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현신균(왼쪽) LG CNS DTI사업부장(부사장)과 이득춘 이글루시큐리티 대표가 21일 보안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제공 LG CNS

## LG CNS-이글루시큐리티 스마트팩토리 보안 MOU

LG CNS가 이글루시큐리티와 스마트팩토리 보안사업을 강화한다.

LG CNS는 지난 21일 마곡 본사에서 이글루시큐리티와 보안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회사는 스마트팩토리 보안 공동사업 추진과 전문인력 교류 및 보안 공동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디지털전환(DX) 가속화로 스마트팩토리 시장은 성장 중이다. 글로벌시장조사기업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오는 2024년 국내 스마트팩토리 시장 규모는 153억 달러(약 1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자동화로 보안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해커는 랜섬웨어를 이용해 스마트팩토리를 무력화할 수 있다. 시스템 파일이 암호화되면서 피해 기업은 스마트팩토리 생산라인을 재가동할 수 없게 된다. 생산라인이 멈추면 기업의 금전적 손실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된다.

LG CNS는 스마트팩토리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축적해왔다. 2018년부터 LG 계열사의 국내외 40여개 스마트팩토리에 컨설팅과 솔루션 구축 및 관제 등 보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스마트팩토리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정보보호 전문기업이다. 스마트팩토리 내 외부 침입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 및 대처한다.

예를 들면 고객사의 스마트팩토리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생산설비가 함께 설치된다. 생산설비는 브랜드마다 데이터 규격이 달라 상호 연동이 어렵다. 이글루시큐리티는 특화 기술로 각 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양사는 향후 스마트시티 보안 서비스에서도 협업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에는 산업 제어시스템(ICS)이 적용된다. ICS는 댐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발전소 전력 효율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ICS는 스마트팩토리 OT와 기술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스마트팩토리 보안기술력이 접목된다.

LG CNS는 국내 첫 MSSP(보안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사업자다. 컨설팅과 솔루션 구축 및 운영에 이르는 보안 전 단계를 책임진다. 고객에게 최적의 보안대책을 제공하기 위해 파트너십으로 보안서비스 협업 생태계를 넓히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스마트팩토리 보안 컨설팅 역량을 갖춘 삼정KPMG와 손잡았으며 올해 4월에는 안랩과 클라우드 보안 MOU를 체결했다.

현신균 LG CNS DTI사업부장 부사장은 “초연결 시대 속 보안 전략 수립은 기업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핵심요소”라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 솔루션 특화기업 이글루시큐리티와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는 기자 gogumee@

## 1인 가구가 쓰기 좋은 다기능 ‘멀티 가전’ 잇따라

렌탈업계가 하나의 제품에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추가한 멀티 가전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코웨이 는 가습과 공기청정기 동시에 되는 ‘듀얼클린 가습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 공기청정 필터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를 청정하고, 공기에 미세수분 입자를 더해 청정 가습을 이중으로 제공한다. 물이 증발하는 원리를 이용한 자연기화식 가습방식으로 습도를 유지하는 게 특징이다. 초미세먼지를 99.99% 이상 제거해 실내 공기 질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코로나 19로 실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사이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경제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렌탈업계는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하나의 제품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멀티 가전을 선보이고 있다.

위니아딤채는 지난 4월 와인셀러와



코웨이 ‘듀얼클린 가습공기청정기’ 쿠첸 ‘플렉스쿡’ 청호 ‘에스프레 카페’

### 코웨이 ‘듀얼클린 가습공기청정기’ 초미세먼지 99% 제거 위니아딤채 ‘냉장고+와인룸’ ... 쿠첸 멀티 쿠키 밥솥 선풍

냉장고가 결합한 ‘위니아 보르도 냉장고’ 2종을 내놔다. 냉장고 상실에 와인 52병까지 보관할 수 있는 와인 1룸형과 최대 104병까지 보관할 수 있는 와인 2룸형으로 구성돼 있다. 4도어 4룸의 쿼드 독립냉각 시스템을 적용, 룸별 저장 환경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 냉

장과 와인룸을 각각 관리할 수 있다.

쿠첸은 ‘플렉스쿡’을 리뉴얼 출시했다. ‘플렉스쿡’은 밥솥부터 블렌더, 반죽기, 다지기, 발효기, 찜기, 휘핑기 등 다수 기능을 갖춘 스마트 멀티 쿠키다. 재료를 넣어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요리가 완성돼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해당

제품 하나로 여러 주방 가전을 갖출 필요가 없어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청호나이스는 커피머신과 얼음정수기를 결합한 ‘에스프레 카페’를 선보였다. 정수, 냉수, 온수, 미온수에 얼음과 커피 추출까지 가능하다. 특히 원두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신 모듈을 적용해 쓴맛은 줄이고 커피의 부드러운 맛은 구현했다. 에스프레소, 룬고, 아메리카노, 소프트아메리카노 4가지 스타일의 커피와 티 추출까지 터치 한 번으로 가능해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62.6%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반수에 해당한다”라며 “코로나 19 이후 이들이 요리와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맞춤형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기능을 자랑하는 가전들이 계속해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 “공부 구독형으로” 교육업계, 콘텐츠 강화

웅진씽크빅, 어린이용 오디오 플랫폼 ‘딸기콩’ 출시 한솔교육 ‘AI 한글나라’ ... YBM넷 영어 도서관 주목

교육업계가 홀로 또는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구독경제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최근 수년 사이 40조 원 이상으로 급성장하는 등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교육업계의 콘텐츠와 구독경제 모델은 궁합도 좋다. 이용자가 학습 효과를 거두려면 꾸준하게 이용해야 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웅진씽크빅은 어린이용 오디오 플랫폼 ‘딸기콩’을 최근 출시했다. 딸기콩은 세계적인 그림책 ‘앤서니 브라운’ 시리즈를 비롯해 국제 어린이 책 박람회 ‘볼로냐 아동 도서전’의 라가치상 수상작, 국내 아동문학작품, 디즈니 영어 오디오북까지 약 5000여 종에 달하는 국내외 아동도서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한다.

웅진씽크빅은 SK텔레콤과도 ‘웅진스마트올’ 구독형 상품을 출시하는 업무 협약

을 체결했다. 웅진스마트올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과 무료 데이터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12세 이하 타깃 브랜드 ZEM과 연계한 초등 전 과목 스마트 교육 사업과 함께 과목 특화형 상품, 중·고등 대상 상품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솔교육은 대표 브랜드 ‘신기한 한글나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구독형 학습 프로그램으로 재탄생시켰다. ‘신기한 한글나라 A.I. 구독형’은 기존 프로그램이 제공했던 놀이 교육 기반의 맞춤형 놀이수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

YBM넷은 구독형 온라인 영어 도서관 ‘YBM리더스(YBMReaders)’로 주목받고 있다. 매일 1만 원대의 구독료로 미국

현지 교과서 연계 도서 1000여 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저명한 출판사 ‘호튼 미플린 하코트(Houghton Mifflin Harcourt)’의 엄선된 도서를 통해 어휘력과 독해력, 말하기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다.

한편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26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을 돌파했다. 일정한 구독료로 소비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기업은 구독료 수입을 꾸준히 얻으면서 고객 록인(Lock-in)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전 산업에서 구독형 서비스 모델이 일반화되고 있다.

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구독경제의 활성화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교육기업들이 저렴한 월 이용료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독형 상품을 앞다퉀 선보이고 있다”며 “제한 없이 폭넓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에게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박성철 에픽게임즈 코리아 대표 “언리얼엔진5 게임 2년 내 출시”

“포트나이트는 내년 중순 언리얼엔진5로 변경할 계획이다.”

박성철 에픽게임즈 코리아 대표는 22일 언리얼엔진5 얼리엑세스 출시 기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언리얼엔진5가 시장에 1~2년 정착한 뒤 관련 게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언리얼엔진5 얼리엑세스는 차세대 기술을 경험해 보고, 다음 게임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해볼 수 있도록 게임 개발자를 위해 준비된 빌드다. 특히 시스템에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처리가 이뤄지며, 언리얼엔진4로 개발된 게임도 엔진 변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언리얼엔진으로 개발된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포트나이트’다. 에픽게임즈가 직접 개발해 2018년 11월 출시한 포트나이트는 언리얼엔진4로 개발됐다.

조성준 기자 tiatio@



# “내수 살리기 힘 보탠다” 백화점 3사 ‘동행세일’

롯데·현대·신세계百貨 할인 행사  
中企 특별전 등 판로 확대 지원



점(25~7월1일)에서 각각 진행되며, 영계 주얼·아웃도어·남성패션 등 5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이월상품을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이 코로나19 극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맞춰 여름 세일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8일간 지난해에 이어 ‘힘내라 대한민국!’을 테마로 정기 바겐세일을 진행한다. 22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여성·남성패션, 잡화, 리빙 등 전 상품군에 걸쳐 올여름 신상품과 이월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매 주말 브랜드별 최대 10% 상품권 증정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여름철 야외활동에 인기가 많은 아이키, 아이다스 등 스포츠 의류 할인 행사도 선보인다. 바캉스 시즌 휴강스족을 겨냥해 리빙, 휴먼테리어 상품군 행사도 준비했다. 알레르망, 닥스, 레노마 등 15개 유명 침구 브랜드는 입점 전점에서 최대 40~75% 할인 판매한다. 특히 롯데백화점과 롯데카드가 제휴해 기획한 ‘롯데백화점 Living by Lola 카드’ 출시를 기념해 매 주말 삼성/LG 전자 8%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압구정 본점 등 전국 16개 전점포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등 17개 점포에서 ‘현대백화점 동행세일’을 실시한다.

행사 기간 △패션업체 판로 지원 행사(코리아 패션 마켓 시즌3) △중소기업 제품 특별전 △30억 원 규모 쇼핑 지원금 제공 △250여 개 브랜드 시즌오프 및 정기세일 등을 통해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패션산업협회 주관으로 ‘코리아 패션마켓 시즌3’을 연다. 신촌점·중동점·판교점(25~29일)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김포

점(25~7월1일)에서 각각 진행되며, 영계 주얼·아웃도어·남성패션 등 5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이월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60% 할인해 판매한다. 또한,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신촌점·목동점·판교점 등 3개 점포에 행사장을 마련해 패션·잡화·식품 등 20~30개 브랜드의 상품을 선보이는 ‘중소기업 상품 특별전’을 연다.

현대백화점은 동행세일 기간 동안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행지원금’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 H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인 ‘플러스 포인트(5000점, 1만 점, 3만 점 각 1매)’를 증정한다.

동행세일 기간 여름 정기 세일도 동시에 진행된다.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5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여름 시즌 신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10~50% 할인 판매한다. 또한 량방·벌바리·로샤스·무이 등 70여 개 해외패션 브랜드가 참여하는 시즌오프도 진행된다.

신세계백화점도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 패션 기업 돕기에 나섰다. 신세계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코리아 패션마켓 시즌3’을 열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브랜드는 지컷, 스튜디오보이, 아이잔컬렉션, 블랙야크, 지오다노, 올센, 주시구떡리 등 총 37개다.

여름 정기세일도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선보인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골프, 수영 등 다양한 레저 상품을 준비했다. 골프 의류 제너럴하우스, 블랙앤 화이트, 빈폴 골프 등에서 최대 2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수영복 스포츠 브랜드인 아레나, 나이키스위, 옐리 등은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신세계그룹, 네이버 없이 이베이 단독 인수 추진

네이버 ‘합병 효과 적다’ 철회

정용진 부회장이 이끄는 신세계그룹이 네이버 없이 단독으로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나선다. 네이버는 이베이 인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네이버는 22일 “당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이베이코리아 지분 일부 인수 등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인수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했다.

당초 네이버는 인수가의 20% 수준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가 이베이 지분 80%에 대해 3조5000억 원 가량을 제시한 점에 대해 네이버 내부적으로 ‘비싸다’는 평가가 나왔다. 100%로 환산하면 4조5000억 원 수준이 된다.

게다가 거래액 기준 1·3위 업체간 인수 합병(M&A)으로 향후 인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도 부담이다.

2009년 이베이코리아가 당시 오픈마켓 1위인 옥션에 이어 G마켓을 인수할 당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은 36.4%로 독과점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공정위는 3년 동안 판매 수수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광고 수수료도 소비자 물가 인상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바 있다.

네이버(17%)와 이베이코리아(12%), SSG닷컴(2%)의 단순 합계 점유율은 31%에 불과하지만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나올 경우 인수에 따른 이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부담이 네이버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 영역이 겹치는 만큼 합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이마트는 직매입 중심의 SSG닷컴과 패션 의류 쇼핑물 더블유컨셉을 운영하고 있지만, 네이버는 오픈마켓으로 분류되는 스마트스토어로 이미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G마켓이나 옥션, G9 등과의 시너지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신세계 그룹은 단독으로도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본업장에서 신세계는 이베이코리아의 지분 80%를 3조5000억 원으로 사들이겠다고 제시했지만 최종 거래 금액이나 조건은 계약이 마무리될 때까지 입찰가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특히 본업장에서 2조 원대를 제시했다가 롯데가 빠지면서 협상에 더욱 유리한 구도다.

자금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마트는 지난해에는 마곡지구 부지를 매각해 6000억 원을 마련했고, 그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은 1조637억 원에 달한다. 신세계는 495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매각한 가양점 판매 대금 6820억 원과 남양주 땅 처분액을 더하면 자금 여력은 2조3000억 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한편 신세계와 네이버는 이번 이베이코리아 인수 건과는 별개로 양사의 협력은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남주현 기자 jooh@

## 아이스크림·삼각김밥도 ‘드라이브 스루’ 대세

직원이 전달 ‘드라이브 픽업’

자동차 안에서 제품을 수령하는 매장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품을 차로 가져다 주는 드라이브 픽업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일찌감치 도입했지만 별도의 점포를 오픈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드라이브 픽업은 기존 매장에서 직원이 차로 제품을 가져다주는 방식이어서 별도로 매장을 인테리어하거나 재오픈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배스킨라빈스가 차 안에서 바로 아이스크림을 받아볼 수 있는 ‘드라이브 픽업(사진)’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스킨라빈스의 ‘드라이브 픽업’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면 모바일 앱 ‘해피오더’를 통해 미리 주문한 제품을 직원이 직접 차까지 전달해



주는 서비스다. 주문서 작성시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원하는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각 매장 마감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교통 안전을 위해 매장별로 지정돼 있는 픽업 장소에서만 제품 수령이 가능하다.

커피전문점들도 드라이브 스루 매장 도입을 늘리고 있다.

폴 바셋은 전주에 첫 번째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선보였다.

전주시 덕진구에 오픈한 폴 바셋 DT 1호점(전주 금암 DT점)은 145석 규모

(약 149평형)의 넓은 내부 좌석을 갖춘 3층 매장이다. 폴 바셋은 오는 12월 제주에 DT 2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씨브웨이는 지난해 대구에 국내 첫 드라이브스루 매장 ‘대구동촌DT점’을 오픈한 데 이어, 최근 전주에 ‘전주송천DT’점을 오픈하는 등 지방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운전석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직원에게 음성으로 주문하는 방식의 주문방식이라 스마트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편의점 CU는 지난해 12월 업계 최초로 자동차 안에서 상품 주문부터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도입했다.

CU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는 오원 앱을 통해 특정 점포를 지정해 원하는 상품들을 골라 주문, 결제한 후 차를 타고 점포에 방문하면 근무자가 주차된 차량으로 구매할 물건을 전달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 쇼핑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곰표맥주·말표막걸리... ‘주류 명가’ CU

올들어 주류 매출 35.5% ↑

CU, 연도별 주류 매출 성장률(단위: %)



CU가 올해 초부터 출시한 차별화 주류 상품들이 잇따라 히트를 치면서 주류 명가로 거듭나고 있다.

CU는 올들어 6월 20일까지 전체 주류 매출이 전년 대비 35.5%나 치솟으며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매출신장률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편의점에서 주류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 비중이 높고 항상 일정한 수요가 있는 상품인데 최근처럼 급격한 매출 상승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CU의 연도별 주류 매출신장률을 보면 수입맥주가 절정에 올랐던 2017년 21.0%에서 2018년 9.9%, 2019년 12.3%로 다소 주춤하다 코로나19로 홈솔루션이 확산된 지난해 17.8%로 반등했으며 올들어(1월~6월 20일) 35.5%로 정점을 찍고 있다.

이는 CU가 와인, 맥주, 막걸리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선보인 차별화 신상품들이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완판 행렬을 이어가는 덕분이다.

올해 1월 CU의 시그니처 와인 mmm(음)! 1탄인 스페인산 레드와인은 40일 만에 11만 병이 모두 팔려나갔다. 이후 3

차에 걸친 추가 입고가 진행되며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 40만 병을 기록하고 있다.

4월 위탁생산으로 대량 공급이 가능해진 곰표 밀맥주는 물량이 확대된 지 단 이틀 만에 기존 대형 제조사의 스테디셀러를 제치고 CU의 전체 맥주 매출 1위에 등극했다. 생산량이 판매량을 못 쫓아가 증산 이후에도 두 차례나 더 발주 정지됐다.

지난주 후속으로 출시된 백양BYC비엔 나라거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 상품 역시 주목 받으며 2회차 발주 만에 초도 물량 약 40만 개가 모두 소진됐다.

막걸리에서도 MZ세대를 겨냥해 출시한 테스형 막걸리, 말표 검정콩 막걸리가 SNS 입소문을 타며 누적 판매량 10만 병을 넘겼다. 당달아 CU의 전체 막걸리 매출은 전년 대비 41.7% 올랐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해외 직구에 라방 강화”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 신사업 공략

직구 온라인몰 ‘엘디에프 바이’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타차’ 론칭 “임기 3년차 성과 필요” 분석도



품 직소싱 온라인몰인 ‘LDF BUY(엘디에프 바이)’를 론칭한 것.

‘트래블 리테일’로의 외연 확장은 호주 법인이 이끌었다. 호주 법인은 현지 상품 소싱부터 플랫폼 운영, 제품 판매, 국내 거주 소비자 대상 직배송 서비스 제공 등을 맡는다. 이 법인의 경우 2018년 현지 사업자인 JR 듀티프리로부터 인수한 사업장으로 현지 브랜드와 상품 구입과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작업은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달 4일에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인 ‘타차(TATCHA)’를 론칭했

다. 2009년 론칭해 미국과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타차’는 일본 전통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스킨케어 브랜드다. 롯데면세점은 업계 처음으로 타차를 들여와 단독으로 판매한다.

라이브 커머스 사업에도 뛰어 들었다. 롯데면세점은 2월부터 6차례 진행한 럭셔리 라이브에 이어 지난달엔 ‘럭셔리 라이브 슈퍼 페스타’를 통해 면세업계 최초 3일 연속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업계에선 이갑 대표가 임기 ‘3년차’를 맞이한 시기가 최근 일련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변수로 예기치 못한 타격을 입은 지난해를 극복하고 올해 내놓는 성과에 따라 이 대표의 올 연말 행보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현대車, 반도체 대란 선방 '박스권' 탈출 보인다

5월 유럽 판매량 105% 증가... 시장점유율 4.1%로 0.7% ↑  
반도체 공장 가동률 회복되면 2분기 영업이익 최대 1.9兆 전망  
美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 인수 등 잇단 투자도 호재

동학개미가 관심있게 지켜보는 하나가 현대자동차다. 반도체 쇼타지(부족) 문제가 불거졌지만, 올해 1조4841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기관들도 2분기 들어 4263억 원을 투자해 현대차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현대차는 언제쯤 박스권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증권업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하반기 주가 회복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시각이 많다.

대규모 투자는 장기적으로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설비뿐 아니라 수소차,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등 미래차 전반에 대해 2025년까지 74억 달러를 투자하

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부족 일시적, 차 수요 살아난다=22일 현대차는 3.43% 오른 24만1000원에 마감했다. 애플과의 협력 소식으로 지난 1월 11일 28만9000원까지 올라갔던 현대차는 이후 하락을 거듭하면서 한때 20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현대차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건 반도체 쇼타지(부족) 문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를 강타하자 이동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한 반도체업체들은 차량용 제품 생산 계획을 크게 줄였다. 예상과 달리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차량 수요가 급격히 회복되면서

불거졌다. 자동차회사는 급하게 반도체 물량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정을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6일까지 7번이나 생산을 중단했다.

증권가에서 최근 "현대차 주가가 올 때가 됐다"고 얘기한다.

우선 현대차와 가이는 반도체 공급난 속에서도 전 세계 점유율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5월 유럽 판매는 각각 105%, 110%(전년 대비) 증가한 4만4000대와 4만4000대, 시장점유율은 현대차는 0.7%포인트 상승한 4.1%, 기아는 0.6%포인트 상승한 4.0%였다. 양사 합산 판매는 108% 증가했고, 점유율은 8.1%(+1.3%포인트)였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 판매량 회복 속도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이후 신형시장 수요회복, 재고 재축적(Restocking) 수요로 한국공장 가동률 회복이 예상되고, 4분기 인도네시아공장 및 러시아공장 가동으로 분기 성장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표주가 30만 원을 제시한 KB증권은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이 1조9000억 원(+전년 대비 21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잇따른 투자도 호재=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공격경영도 호재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1일 소프트뱅크그룹으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배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80%를, 소프트뱅크그룹이 20%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 거래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가치는 약 11억 달러(한화 약 1조2482억 원)로 평가됐다.

전기차 부문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현

대차그룹은 미국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세울 예정이다.

유지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미국 EV 현지화는 기업가치의 변화에 있어 가장 큰 결정변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 공장에서 전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이슈까지 겹치면 2025년까지 최소 150만 대 이상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최근 미차량공업협회 우버-리프트와 로보택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수급 문제에도 4-5월 글로벌 자동차 판매(누적 중국제외)는 기존 예상보다 0.5% 많았고, 판매 모델 비율도 예상보다 양호했다"며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비교적 양호한 업체에 해당되고, 오히려 경쟁사 생산 차질에 따른 경쟁완화(인센티브 축소 등)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될성부른 떡잎' 투자 대박난 증권사들

한국투자, 카뱅 보유지분 31.77%... 이익 7000억 원 이상 전망  
미래에셋, 동남아판 우버 '그랩'·中 디디추싱 투자로 '돈방석' 기대

미국 혁신기업이 모여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 투자를 받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캘퍼스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캐피탈 회사에 투자한다. 이 돈을 받은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착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는 구조다. 2009년에는 캘퍼스가 친환경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 '코슬라 펀드'에 6000만 달러를 투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혁신기업의 아이콘인 테슬라도 결국 캘퍼스의 초기기업 투자를 받은 덕분에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될성부른 떡잎'에 지분 투자한 한국금융투자주와 미래에셋증권이 대박을 터트리게 됐다.

비상장 기업들의 IPO 주관사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벤처캐피탈(VC)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비상장 기업 지분 투자에 적

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투자주와 그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합쳐서 카카오뱅크 지분 31.77%를 갖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지분 31.78%) 다음으로 많다.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는 최대 21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자기자본 7조 원에 주당순자산비율(PBR) 3배를 적용한 경우다. 이렇게 되면 한국금융투자의 보유지분가치는 5조3370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장에서는지분법상 이익이 약 7000억 원 이상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시중에 유동성이 많을수록 흥행에 유리한 기업공개(IPO) 시장의 성격에 기인하겠지만, 상장시기와 무관하게 카카오뱅크의 기여 이익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고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IPO 이후 자기자본 7조 원, PBR 3배를 가정하는 경

우 지분가치는 5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금융투자계열 외에도 국민은행(9.35%), 넷마블(3.74%), 예스24(1.4%) 등이 카카오뱅크 주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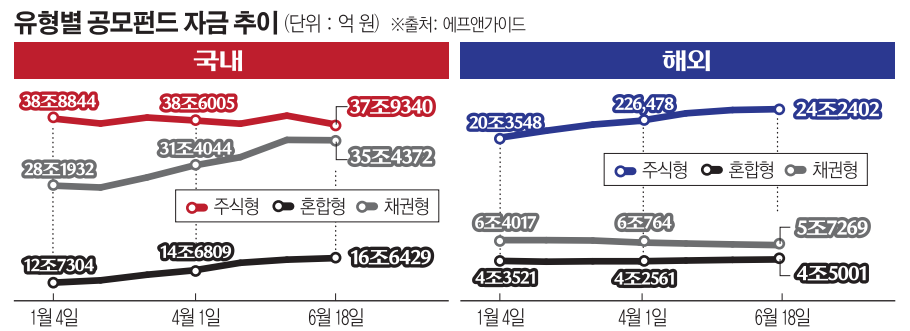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도 '떡잎'이 효자가 됐다.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그랩과 중국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디디추싱(Didi Chuxing)이 조만간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디디추싱'에 미래에셋캐피탈, 네이버 등과 공동으로 2800억 원을 투자했다.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그로스펀드를 통해 1억5000만 달러 규모로 동남아 차량공유서비스 시장 1위 업체인 그랩에 투자했다.

디디추싱은 2019년 투자 유치 당시 기업가치가 620억 달러(약 69조 원)로 평가됐다. 비상장 기업 중 영상 플랫폼 틱톡(중국명 더우인) 운영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어 몸값이 가장 비싸다.

IPO 후 디디추싱 기업가치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 공모펀드 시장 '들쭉' 울들어 15兆 유입

6월 기준 설정액 125조 원  
국내혼합형 30% 이상 증가

ESG,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채권펀드 등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공모펀드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1조 원 가량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초(6월 1일) 공모펀드 설정액(국내주식형+국내혼합형+국내채권형+해외주식형+해외혼합형)은 125조643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초(1월 4일) 110조9165억 원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15조 원 넘게 몸집을 불린 셈이다. 전체 공모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은 매달 증가세를 보였다. 1월 111조 원 규모에서 3월 115조 원, 5월부터 120조 원까지 늘어났다.

특히 국내혼합형 공모펀드에 자금이 쏠렸다. 올해 초 12조7304억 원에서 이달 18

일 기준 16조6429억 원을 기록해 30% 넘게 증가했다. 국내혼합형은 KOSPI TR 30%에 KIS 채권 종합 70%로 구성되는 방식이다. KOSPI TR은 배당을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한 총수익률 지수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 국내채권형 공모펀드 설정액은 28조1932억 원에서 35조4372억 원으로 25%가량 늘어났다. 연초 이후 채권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법인, 기관을 중심으로 자금 집현이 이어져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주식, 채권펀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해외주식형 공모펀드 설정액은 20조3548억 원에서 24조2402억 원으로 증가했다. 해외혼합형 공모펀드는 4조3521억 원에서 4조5001억 원으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다만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는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초 설정액은 38조8844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달 18일 37조9340억 원을 기록해 오히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에 따라 대규모 환매가 나타날 바 있다.

이인아 기자 ljh@

## “증권판 아마존”으로 키운다” 키움증권, 초대형 IB 눈앞

유증 후 자기자본 3.1兆 전망

'동학 개미' 열풍에 일찌감치 종합금융투자사(증권사)자리를 꿰찬 키움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우뚝 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키움증권은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44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3차 배정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유상증자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납입일은 오는 29일이며,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7월 12일이다.

키움증권의 자기자본은 1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2조7288억 원이다. 이번 유상증자를 마치면 자기자본이 3조17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종투사 자격을 갖춘다. 종투사는 기업대출, 보증 등 신용공여 가능 규모가 커져 IB 사업의 확장이 기대된다. 헤지펀드 거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라이빗코리지

서비스(PBS) 사업도 펼칠 수 있다. 키움증권이 리테일 위주의 사업 구조를 확장할 수 있다. 그동안 중견·중소기업 위주로 틈새시장 발굴에 주력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대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잇달아 참여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종투사로 등록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메리츠증권·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 등 8곳이다.

남다른 DNA는 IB 사업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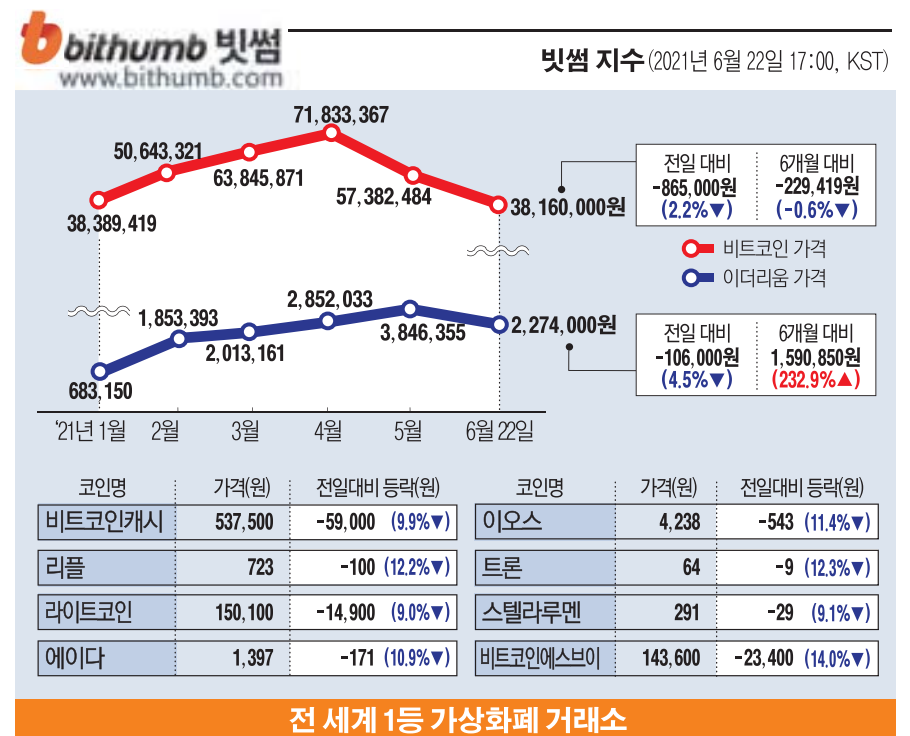
키움증권은 태생부터 다른 증권사와 달랐다. 대부분 증권사가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회사의 계열사로 출발한 것과 달리 '밑천' 없이 시작했다. 키움증권은 2000년 점포 없는 증권사로 출범해 온라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 경쟁사와 차별화한 정보기술(IT) 기

반 비즈니스 모델을 일찌감치 구축해 온라인 증권거래 시장을 선점했다.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다른 증권사와 달리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들과 비슷한 피가 흐르고 있다.

모회사가 IT 전문기업 다우기술인 점도 키움증권이 남다른 유전자라 지닌 배경이다. 벤처기업 형태로 시작한 회사답게 의사결정이 빠르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사장은 키움증권을 금융투자업계의 아마존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는 프라이빗코리지서비스(PBS) 및 기업신용공여를 수행할 수 있어 기업금융(IB) 업무 영역이 이전보다 크게 확장된다"며 "브로커리지 전문 증권사로 받았던 밸류에이션 할인이 점차 축소됨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기자 pgy@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매맷값 넘보는 오피스텔 전셋값 '강통 경고음'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84% 넘어... 일부 지역 '역전' 현상  
전셋값 꾸준히 올랐지만 대출규제 강화에 매매시장 '잠잠'  
"강통전세 피하려면 계약 전 권리관계 등 꼼꼼히 따져봐야"

오피스텔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가격(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도 치솟고 있다. 일부 오피스텔에선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자칫 '강통 전세' 오피스텔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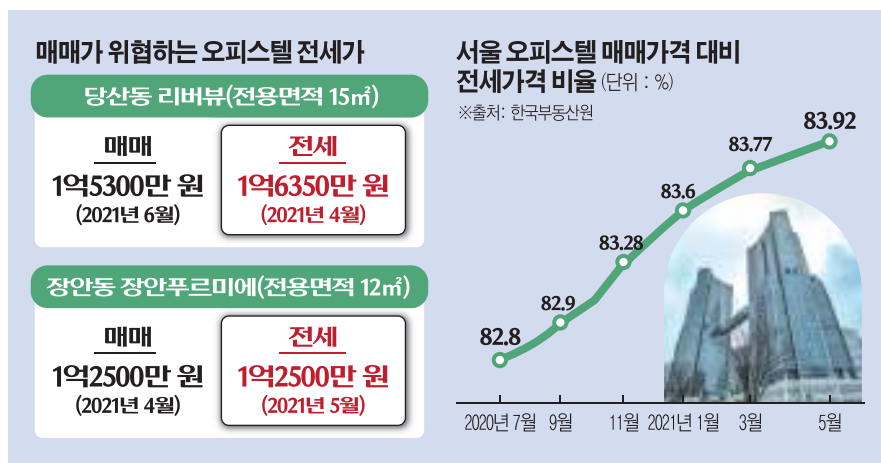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83.9%다. 지난해 7월 부동산원이 오피스텔 시장 조사 표본을 변경한 이래 최고치다. 표본 개편 이후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열 달 내리 상승했다. 60%대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과 비교해도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오피스텔 전세가격 상승은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지난달 5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를 뺀

16곳에서 열 달 전보다 전세가격이 올랐다. 세종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평균 92.3%에 이른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1억 원이라면 전셋값이 9230만 원으로 800만 원도 차이가 안 난다는 뜻이다.

실제로 오피스텔 가운데선 오피스텔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거나 심지어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곳이 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리버뷰' 오피스텔에선 4월 전용면적 15㎡형 전셋방이 1억6350만 원에 나갔다. 이후 이 오피스텔에선 같은 면적의 전셋방이 6건 매매됐지만 한 건도 매매가가 1억6350만 원을 넘지 못했다. 4월 전용 12㎡형이 1억2500만 원에 팔렸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푸르미에' 오피스텔에선 지난달 같은 금액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처럼 오피스텔 전셋값은 빠른 속도로 매매가격을 뒤쫓고 있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가격지수는 지난 1년 동안 1.9% 올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6%였다.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더 빠르게 올랐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가격도 함께 오르지만 최근 오피스텔 매매시장은 상대적으로 잠잠하다. 대출 규제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5월부터 오피스텔에도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서 시장이 찬물을 맞았다. 주택과 비교해 금융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오피스텔 비교우위가 퇴색되다. 신축 오피스텔은 고급화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구축 오피스텔은 그마저 어렵다.

그나마 최근 구축 오피스텔 시장을 주도하는 건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사는 '깍투자자'다. 전셋값이 매매값에 달라붙으면 적은 돈으로도 오피스텔을 취득할 수 있어서다. 강남권에서도 1000만~2000만 원만 실투자하면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살 수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선 매매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전셋값(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강통 전세'가 될 위험성이 잠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오피스텔은 소유자가 주택시장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세를 주더라도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반 주택보다 세입자 보호가 어렵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가격이 80%를 넘어면 강통 전세 위험이 높다고 봐야 한다. 오피스텔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권리관계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투자자도 가격 상승 여력 등을 고려해 신중히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 재건축·GTX로 달궈진 서울·경기, 매물 1만건 사라져

지난 한 달간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매물이 1만 건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이 지난 이후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추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매물은 총 11만2708건으로 한 달 전(5월22일 기준) 대비 9125건 감소했다. 아파트 매물이 한 달 동안 1만 건 가까이 줄어든 건을 들어 월간 기준으로 처음이다. 직전 한 달(4월22일~5월22일) 5000건 가까이 매물이 줄어든 데 이어 두 배 가까이 물량이 급감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 다시 거둬들이며  
"양도세 증가로 세 부담 커져 매물잠김 심화 가능성"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매물은 올들어 2월까지 줄다가 3월 들어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 2월 22일~3월 22일 한 달간 경기도 아파트 매물은 약 1만 건, 서울은 6000건 가량 추가됐다. 그간 집값 급등 피로감과 정부의 공급 확대 기대감에 관망세가 확산한 영향이 컸다. 이같은 추세는 4월에도 이어졌다.

늘어나던 매물이 5월부터 다시 줄기 시작한 데에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 영향이 적지 않았다. 6월 1일 전엔 절세 회피 매물이 시장에 제법 풀렸지만 과세 기준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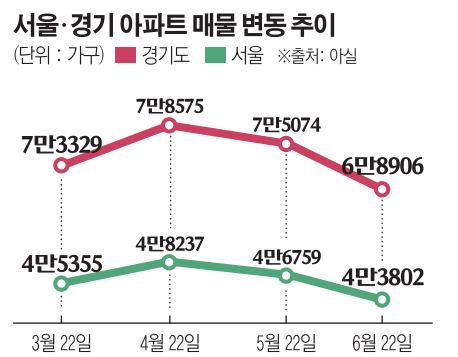
지나고 나면 집주인들이 내렸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과세 기준일이 지나면 집주인들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높은 가격에 팔려는 심리가 강해진다"며 "특히 올해에는 양도소득세 부과로 세 부담이 더 커져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유인이 사라져 매물 잠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와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매물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4월 시장에 취임한

뒤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었다.

노원구 상계동 A공인 측은 "매물은 거의 없는데 매수 문의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14일 기준) 1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인 0.12%까지 치솟았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양도 지위를 제한 등 강경책을 잇따라 내렸지만 상승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경기도에선 GTX 등 교통망 확대 호재를 가진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회수가 이어지고 있다. GTX-C 신설역이 사실상 확정된 경기도 안양 동안구는 지난주 집값 상승률이 0.99%로 1%에 육박했다. 동안



구의 매물은 현재 1497건으로 열흘 전(1694건)보다 10% 넘게 줄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재건축 시장에 대한 서울시의 규제와 GTX 호재 기대감이 선반영 됐던 지역 집값이 일부 조정될 수는 있지만 세제 강화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매물 잠김 심화가 이어져 서울·수도권에선 매도자 우위시장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로또 분양' 열풍에 올 청약통장 70만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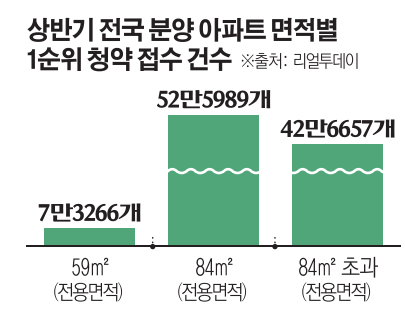
청약통장 가입자 수 2626만명  
국민 2명 중 1명 청약통장 보유  
전용 84㎡, 1순위 52만개 물려



올 들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쏟아지는 '로또 분양'을 통해 내집 마련과 함께 시세 차익도 노려보려는 청약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5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26만434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가입자 수 2555만9156명과 비교하면 올 들어 5개월 동안 70만5189명이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었다. 이로써 국민(5168만 명·5월 기준) 두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청약통장을 보유하게 됐다.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인천·경기지역에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이 지역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는 4만3981명으로 같은 기간 서울 신규 가입자(4227명)의 10배에 달한다. 현



재 인천·경기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854만5453명에 달한다.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는 '로또 청약'이 한 몫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의 분양 통제로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시세보다 수 억 원 저렴한 새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시세 차익이 클 수밖에 없다. 분양이 예정된 3기 신도시도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 주요 지역 분양시장은 청약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상태. 웬만한 곳에서 분양하는 단지도 수십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 일쑤다.

이 중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에서 전용 84㎡형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달라붙었다. 전용 84㎡짜리 아파트 2만9996가구가 공급됐는데 52만5989개의 1순위 청약통장이 몰린 것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예정된 만큼 청약통장 신규 가입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 같다"며 "공간 활용도가 높은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청약 수요가 워낙 많아 분양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 서남권 최대 뉴타운 '신림1구역' 속도

계획 변경안 마무리 수순... 중대형 평형 확충하고 가구 수 늘려

서울 서남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신림 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림1구역'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마무리 수순을 밟으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림1구역 재개발 조합과 서울시는 최근 협의를 통해 용적률을 259.8%로 상향하는 쪽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신림1구역은 신림2·3구역에 비해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다소 지지부진했다. 이번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마무리되면 시공사 선정 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일정이 계획보다 3~4개월가량 지연됐지만, 그만큼 사업성은 좋아졌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애초 4월 중순 용적률 241.7%로 제시된 공공기획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20%가량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보다 가구 수도 300가구 가량 늘었다. 애초 3961가구 공급이 계획됐지만, 이번 계획 변경으로 약 4250가구를 공급하게 됐다.

당초 계획안보다 중대형 평형 가구 수도 늘었다.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전용면적 59㎡를 1149가구에서 840가구로 줄이고

전용면적	변경 전	변경 후
59㎡형	1149가구	840가구
84㎡형	1646가구	2250가구
98㎡형	110가구	220가구
114㎡형	-	270가구
펜트하우스 (140㎡형)	14가구	27가구
임대아파트	-	650가구

전용 84㎡를 1646가구에서 2250가구로 늘렸다. 이밖에 △전용 98㎡ 220가구 △전용 114㎡ 270가구 △펜트하우스 27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아파트도 650가구가 들어선다.

재개발 변경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신림1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오는 9월께 시공사 선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예정대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 8~9월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11~12월 조합원 분양 신청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일을 2027년 9월로 잡고 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 “올해 안에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 법원, 이스타항공 우협 ‘성정’ 허가

사회적합의기구 과로사 방지 최종 합의... 9월부터 단계적 시행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택배사와 노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등이 참여한 사회적합의기구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최종 합의 결과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합의기구는 올해 내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를 위해 택배사와 각 영업점은 올해 추석 이전인 9월 1일부터 단

계적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입한 인력 외에 10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CJ대한통운도 1000명에 상응하는 인력·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한다.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및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물

량·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생연석회의 전임 수석부의장으로서 합의 과정을 이끌어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 합의 정신을 존중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24일 본계약... 차순위는 광림

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선 성정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2일 이날 오후 이스타항공 최종 및 차순위예정자 허가신청서를 접수해 이를 허가했다. 허가신청서에는 우협 대상자로 성정을, 쌍방울 그룹이 이끄는 광림컨소시엄을 차순위 예비후보자로 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생법원의 허가로 성정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 실사를 생략한 후 본계약을 체결한다. 본계약 체결 예정일은 24일이다.

본 계약이 끝나면 성정은 부채 상황, 유상증자 등 회생계획안을 다음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후 매각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번 이스타항공 매각은 성정을 미리 우선매수권을 가진 예비인수자로 선정하고 공개 경쟁입찰을 받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쌍방울그룹이 지난 14일 1100억 원으로 단독 입찰했으나 성정도 100억 원을 더 올려 쌍방울과 똑같은 입찰가를 제시했다. 두 기업이 동일한 입찰가를 제시한 상황에서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성정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출게 됐다.

성정은 충남 부여에 본사를 두고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이다.

성정 측은 지난해 매출은 총 383억 원으로 이스타항공이 2019년 올린 매출 5518억 원과 비교했을 때 14분의 1에 불과해 경영 능력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



돋자리 우산 22일 서울 한 공원에서 소나기가 내리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돋자리로 우산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 “미성년 주거지 강제침입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항소심서 원고 패소 판결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미성년자를 뒤따라간 뒤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6월 서울 강서구 내 한

매장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 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이후 B 양이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강제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도어락 커버를 열고 수차례 비밀번호를 누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법무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9년 12월 해당 범죄자실에 근거해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해임 처분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시도했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갔음에도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면서 “어린 여학생이 커다란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높은 준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일반 상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힘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 “한동훈 개인 아닌 국가기관 비판”

‘명예훼손’ 유시민 항변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만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면서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특히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다”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고 검찰이 유 이사장을 직접 수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사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지난해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해 4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유 이사장은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나경연 기자 con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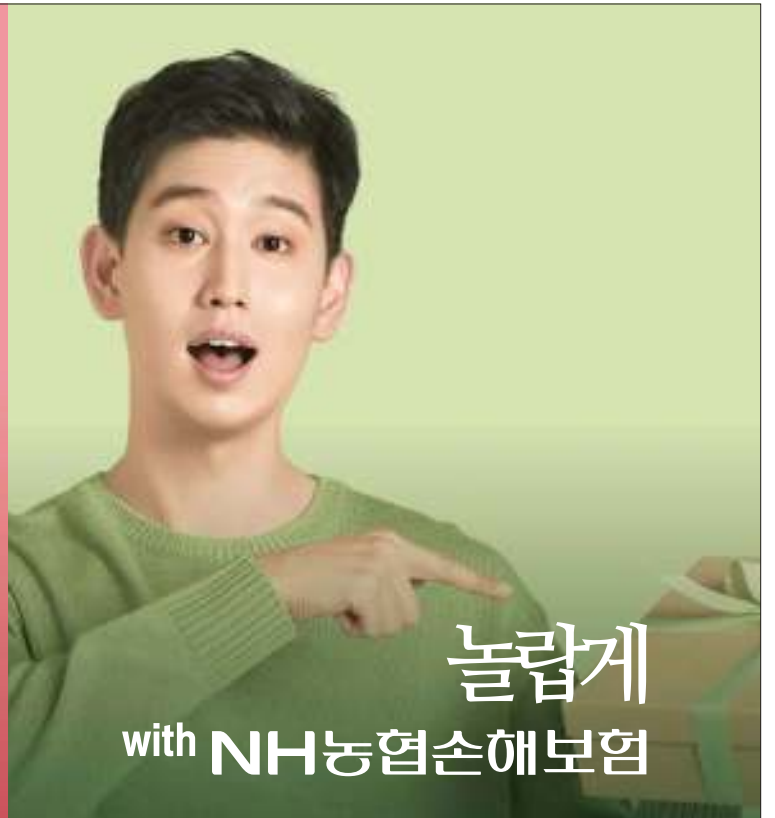
# 에너지에 온기를 더하다

친환경 에너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 개별난방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6.1% 감소
- 개별난방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3.7% 감소
- 황산화물질 배출 저감 청정기체 연료 전환
- 대기오염 방지시설 확충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금융에 색을 입히다

당신 이  
색 다르면  
금융 도  
색 다르게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이 광고는 NH농협금융 계열사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출연했습니다.







# 수익·위험관리 동시 만족 변동성 장세 '투자의 정석'

적립식 투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A씨는 은행 적금을 가입하려고 하니 금리가 낮아 고민이다. 주식에 투자하고 싶지만, 코스피 지수가 또 다시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내려가진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증권사를 찾는 신규 투자자들의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증권사의 검증된 상품들이다. 증권사들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뉴딜 흐름에 맞춰 수혜가 예상되는 글로벌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을 비롯해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투자상품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상품, 경기 회복기에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투자자산으로 관심이 높은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투자 상품 등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증시가 오를수록 불안한 투자자라면 수익과 위험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품들을 들여다 보자.

## 해외 혁신기업 분산 투자, 절세 혜택은 '덤'

### 미래에셋증권

#### Global X ETF랩

미래에셋증권은 초저금리 시대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축에서 투자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에 주목할 랩 계약으로 'Global X ETF랩'을 짰다.

'Global X ETF랩'은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되는 계약으로서 현재 누적 잔고 1500억 원이 넘는 미래에셋증권의 대표 테마형 ETF랩 계약이다. 클린 에너지, 클라우드, 디지털헬스케어, 게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메가 테마에 폭넓게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며 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lobal X ETF랩'은 올해 들어 400억 원 이상의 잔고가 유입되면서 현재 잔고는 1500억 원(2021년 5월 31일 기준)을 넘어섰다.

'Global X ETF랩'의 가입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며 중도입출금과 중도해지를 할 수 있으며 미래에셋증권 전 영업점을 통해 전화와 외화로도 가입할 수 있다.



해외주식으로 분류되는 역외 ETF에 투자되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분류(단일세율 22%)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입 고객이 원할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정범 미래에셋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미래에셋증권은 단기 수익률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혁신적이면서도 검증된 상품을 지속해서 발굴해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그린 뉴딜·디지털 전환' 중심 안정적 수익

### 하나금융투자

#### 하나 뉴딜글로벌테크랩 V4

"전세계가 주목하는 뉴딜의 물결에 합류하라".

하나금융투자는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뉴딜 트렌드에 맞춰 수혜가 예상되는 글로벌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하나 뉴딜글로벌테크랩 V4'를 추천했다. 세계 각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그린'과 '디지털 전환'을 양대 축으로 한 뉴딜 정책을 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으로 보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나 뉴딜글로벌테크랩 V4'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거재소에 상장된 그린 뉴딜과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들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한다. 뉴딜 관련 국내 투자에 집중된 '하나 뉴딜금융테크랩 V3'의 확장 버전으로 미국과 중국 등 지역 분산과 대형주 위주의 투자로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나금융투자 랩운용실이 리서치센터와 협업해 각종 분석을 받아 종목을 선정하고 운용한다.

권장진 하나금융투자 랩운용실장은 "우리는 뉴딜 정책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을 이미 세계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를 통해 보고 경험하고 있다"며 "하



나금융투자는 손님들이 뉴딜정책의 수혜를 누리려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나 뉴딜글로벌테크랩 V4'를 마련했다"고 출시 소감을 밝혔다.

'하나 뉴딜글로벌테크랩 V4'는 선취형과 성과형으로 나뉜다. 최저 가입 한도는 3000만 원이며, 500만 원이 넘는 선에서 추가 입출금이 가능하다. 일부 출금도 가능하지만, 최저가입금액을 웃돌아야 한다. 수수료는 선취형의 경우 1.0%에 후취로 연 1.5%가 부과되고, 성과형은 후취로 연 1.5%에 손님과 별도 합의로 정하는 성과수수료가 부과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리츠, 금리 상승기 주식·채권보다 높은 수익

### 한국투자증권

#### 하나UBS글로벌리츠부동산펀드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을 직접 받았던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가 경기 회복기에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투자자산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나오는 임대수익과 향후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방식을 의미한다.

인컬형 자산의 꾸준한 배당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최근 높은 물가 상승세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면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금리 인상은 배당 매력도를 축소하고 조달 금리를 높인다는 점에서 리츠에 부정적이지만,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임대료가 인상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실제 과거 금리 상승기에 리츠는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전통 자산들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왔다. 리츠는 주식 등 다른 자산들에 비해 저평가된 것으로



로 분석된다. 리테일과 오피스 리츠는 작년 2분기를 저점으로 임대료 징수율과 임차율이 개선되고 있으며, 실적도 4분기 들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리츠는 주식 대비 회복 속도가 느린 자산으로, 이미 높은 가격을 형성한 다른 자산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기대수익률을 갖고 있다.

'하나UBS글로벌리츠부동산펀드'는 세계 각국 부동산에 고르게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리츠 펀드다. 2005년 설립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글로벌 리츠로, 관련 투자 경험이 풍부한 골드만삭스에서 위탁 운용한다.   
이인아 기자 ijh@

## '시총 3억 달러 이상' 美 상장 리츠 선별 투자

### 삼성증권

#### 삼성 뉴버거버먼 미국리츠

삼성증권은 전세계 리츠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리츠를 선별 투자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추구하는 '삼성 뉴버거버먼 미국리츠' 펀드를 판매 중이다.

위탁운용사인 뉴버거버먼사는 관리자산이 400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다양한 지역과 자산에 대한 노하우를 구축한 운용사이다.

리츠란 주식 등을 발행해 모집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구입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과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부동산투자에 특화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러한 리츠는 모든 스타일의 주식과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분산투자에 효과가 있다. 특히 미국 리츠는 인프라, 데이터센터, 주택, 오피스, 리테일, 물류창고 등 다양한 섹터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고 시장 규모가 큰 만큼 유동성도 풍부해 투자하기 더욱 매력적이다.



삼성 뉴버거버먼 미국리츠 펀드는 미국 180여 개의 상장리츠 중 40여 개에 선별·분산 투자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며 종목당 편입비중을 1~10%로 제한, 유동성 고려하여 시가총액 3억 달러 이상 투자대상으로 선정 등 명확한 운용 원칙을 가지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리츠는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해야 법인세가 면제되는 특성이 있어서 꾸준한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미국리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가장 유망한 투자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투자 자산군 넓혀... ISA 일임형 수익률 33%

### NH투자증권

#### NH크리에이터 어카운트

NH투자증권은 프라이빗뱅크(PB)가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까지 해주는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 계좌) 'NH크리에이터 어카운트'를 판매하고 있다. NH크리에이터 어카운트는 PB가 시장 상황, 고객의 의견 등을 참고해 매월 포트폴리오를 재배분(리밸런싱)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처음 이 상품에 가입하면 PB의 상담과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 진단 설문지를 통해 고객의 투자 목표와 니즈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작성된 투자 성향과 투자 기간 등을 바탕으로 계량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선정해 고객에게 전달한다.

랩어카운트는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싸서(wrap) 한 계좌(account)에 넣어 운용하는 상품으로 고객마다 계좌를 만든다는 점에서 펀드와 다르다. 펀드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 큰 공동 계좌를 만들어 운용한다. NH 크리에이터 어카운트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수 있는 투자 자산군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 국내채권(장내채권), 해외채권 등이다. 또한, 한·미 ETF 등 최종 상품군까지 추천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다. QV모델 포트폴리오는 코스피 지수(누적 기준) 대비 높은 위험 조정수익률을 나타냈으며 특히 QV ISA 일임형 상품의 경우 올 4월 말 기준 평균 누적 수익률 33.38%로 최상위권을 기록하기도 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 AI·반도체 등 中 신기술 테마 선두기업 중점

### KB증권

#### KB통중국4차산업증권투자신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생활방식과 산업은 많이 바뀌고 있다. 특히 언택트(비대면)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4차산업은 더욱 주목을 받는 테마가 됐다. 4차산업은 언택트 업무처리와 생활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과 기술인 만큼 투자가치가 높다.

이에 KB증권은 중국 및 홍콩 등에 상장된 중국 관련 주식 중 언택트 트렌드 확산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신기술 관련 테마 선두기업들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수익을 추구하는 'KB통중국 4차산업증권투자신탁[주식]'을 판매하고 있다.

이 펀드는 중국 4차산업 기술의 경쟁력, 정부의 지원 등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높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 △반도체 굴기 △스마트폰 밸류체인 △로봇+공장자동화 △차세대 유니콘 등 5개 테마를 선정해 테마별 선두기업에 투자한다.

우선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알



고리즘 기술력을 갖춘 중국의 선두 인터넷 기업들과 방대한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 △'AI+빅데이터'를 테마로 꼽았다.

이어 △'반도체 굴기' 분야는 중국이 반도체 자급화를 이루기 위해 국가 반도체 산업투자기금 등을 조선하며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5세대 이동통신(5G)과 차세대 통신 기술관련 특허 등 이미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 △'5G+스마트폰'도 선정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매월 자산 리밸런싱 '고수익 지향형' 적합

### 메리츠증권

#### 메리츠펀드마스터랩

메리츠증권이 국내, 해외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메리츠펀드마스터랩(랩)'을 판매 중이다. '메리츠펀드마스터랩'은 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펀드를, 언제 사야 하는지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직접 펀드를 고르고 운용하는 랩어카운트다.

'메리츠펀드마스터랩'은 메리츠증권의 리서치센터와 상품부서가 협업해 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경기와 시장전망에 따라 투자 유망한 자산과 국가 등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제시한다. 또 펀드 전문가들이 운용성과와 철학이 우수한 펀드를 선정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매월 자산 배분 전략 회의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자산의 리밸런싱을 실시하고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시장 상황에 대응한다. 특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는 이경수 센터장이 부임한 2016년 이후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평가에 5년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된 이력도 보유하고 있다.



최소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이며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해지 시 별도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또한, 매 분기 운용보고서를 통해 현재 운용상태와 향후 운용 전략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고수익 지향형 이상의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추천했다. 투자일임 수수료는 연 1.5%로, 예탁자산 평가액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분기 단위(1, 4, 7, 10월)로 징수한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 성격 다른 ETF 조합으로 변동성 ↓ 수익률 ↑

### 신한금융투자

#### 신한 SHarp 글로벌 EMP 랩

신한금융투자는 저성장 환경 속에서 글로벌 투자를 통해 수익 기회를 창출하는 '신한 SHarp 글로벌 EMP 랩'을 추천했다.

'신한 SHarp 글로벌 EMP 랩'은 신한금융투자 포트폴리오전략부가 글로벌 ETF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신한금융투자 랩운용부가 최종 운용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투자 대상은 전 세계 증시에 상장된 ETF이며 국내 유동성은 RP와 MMW로 투자된다. '신한 SHarp 글로벌 EMP 랩'은 EMP(ETF Managed Portfolio)의 장점인 저비용, 투명성, 환금성, 다양성, 이중분산 효과를 바탕으로 하는 상품이다. 다양한 시장국면에서 성격이 다른 ETF의 조합으로 변동성은 낮추면서 수익률은 제고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한 SHarp 글로벌 EMP 랩'은 매월 시장국면을 반영한 신한금융투자 포트폴리오전략부의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 자문을 바탕으로 고객의 투자목표와



성향을 고려해 주식형, 인컴형, 자산배분형 등 3가지 모델 포트폴리오 유형을 제시한다.

글로벌 주식형 포트폴리오는 장단기 관점에서 알파수익요소를 창출할 ETF를 전략적으로 선별, 투자한다. 주식형은 전통적인 지역, 섹터 중심의 운용전략에서 벗어나, 주식시장의 주요 성과 요소에 대해서 분석, 장단기 관점에서 알파 성과 요소가 될 수 있는 ETF를 선별해 분산 투자한다.

'신한 SHarp 글로벌 EMP 랩'의 최소 가입금액은 3000만 원이며 모바일로 가입 가능한 e랩의 경우 1000만 원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 미국·홍콩증시 상장 중소형 성장주 분산투자

### 유진투자증권

#### 유진 챔피언 G2 삼성자산자문형 랩

유진투자증권은 추천상품으로 '유진 챔피언 G2 삼성자산자문형 랩(Wrap)'을 선택했다. 이 상품은 일임받은 고객자산을 삼성자산운용사의 자문을 통해 글로벌 양대 강국 미국과 중국주식에 투자하는 랩어카운트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4월 말 삼성자산운용과 계약을 맺고 '유진 챔피언 G2 삼성자산자문형 랩'을 출시한 바 있다.

이 상품은 전세계 혁신을 이끄는 트렌드를 △비대면 △디지털 상호작용 △차세대 컴퓨팅 △자율화 솔루션 등 4가지로 구성됐으며 각 테마별 미국,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소형 성장주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미국과 홍콩증시에 상장된 지 5년 미만의 초기 성장주에 투자하여 높은 성장률을 추구하고, 20% 내외로 미국(NASDAQ)과 홍콩(HSTECH) 성장인덱스지수 ETF 투자를 통해 지역별 투자 비중을 유기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해외주식과 주요국 통화에 투자함으로써 G2 성장 기업과 기축통화(달러, 홍콩달러)에 투자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의 번거로운 환전 및 매매 등을 전문가에 일임해 손쉬운 해외시장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주로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꼽힌다. 개인 투자자들이 과매수하고 있는 초대형 성장주와 시장 이벤트 예측에 기반을 둔 단기적인 종목 투자는 지양하되 테마별로 IPO 초기 상장사 등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들을 다뤘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 운용비 대폭 낮춰 적립식·장기전에 유리

### 대신증권

#### 대신 로보어드바이저

대신증권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를 보고 고점이라는 생각에 투자를 주저하는 고객을 위해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투자상품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신 로보어드바이저'는 국내의 상장지수펀드(ETF)에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해 주가지수보다 낮은 변동성을 추구해 적립식 투자와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일반적인 펀드들과 비교 시 판매 및 운용에 드는 비용을 대폭 낮춰 장기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운용보수가 없는 게 특징이다.

이 상품은 투자 대상을 머신러닝 기법과 블랙-리터만 모형을 통해 찾는다.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100%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데, 대신금융그룹의 금융공학파트가 개발했다. 금융위원회와 코스피가 주관한 테스트 베드 1차에서 누적 수익률 부분은 동일 유형 평균을 상회했고, 위험에 대한 초과 수익 정도를 나타내는 '샤프지수'도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또 다른 특징은 판매와 운용에서 낮은 비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자산관리는 높은 비용을 수반하지만, 낮은 보수는 고객들의 비용을 수익으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장기 지속적인 자산관리 관점에서 더 확정적인 미래 수익이라 볼 수 있다.

'비용의 복리' 효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장기투자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 비용을 줄이게 되면 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수익은 커지게 된다. 최소가입금액은 펀드형은 제한이 없으며, 일임형은 300만 원이다.

김우람 기자 hura@



## 특약 없이 뇌출혈 등 22개 질환 종신보장

### 삼성생명

#### 건강종신보험 대장금

삼성생명은 기존 GI(General Illness, 주요질병 및 중대한 수술)플러스종신보험 대비 보장을 넓히고 가입 연령을 확대한 '건강종신보험 대장금'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주보험 가입만으로 3대 GI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중증만성간질환, 중증만성폐질환, 관상동맥우회술 등 18대 질병 및 수술과 LTC(Long Term Care, 장기요양상태) 1,2등급 상태 등 총 22개 주요보장을 종신까지 보장한다.

이 상품은 GI+LTC+유방암+자궁암 진단 확정 또는 장해지급률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또한 GI·LTC보험료환급특약을 도입했다. 이 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기간 중에 GI나 LTC, 유방암·자궁암이 발생할 경우 납입한 주보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을 확대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상품대비 최대 +6세까지 가입연령을 확대해, 1종은 만 15세부터 최대 51세까지, 2종은 만



15세부터 최대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기간은 10년납부터 25년납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연령은 성별 및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병력이 있는 고객도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미달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제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GI·LTC 보장을 받기 원하는 고객들은 건강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기존 GI플러스종신보험 대비 가입 문턱은 낮추고, 보장과 서비스는 업그레이드했다"며 "기존 상품의 경쟁력은 유지하되, 단점을 보완해 보다 많은 고객의 니즈에 맞춘 상품"이라고 말했다.

## 주계약서 수술비 최대 8000만원 선지급

### 한화생명

#### 누구나필요한 수술비종신보험 무배당

한화생명은 사망에 대한 보장뿐 아니라 수술에 대해 최대 8000만 원까지 주계약에서 선지급하는 '한화생명 누구나필요한 수술비종신보험 무배당'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이지만 별도의 특약 없이 암과 뇌혈관·심장질환으로 인한 수술을 보장한다. 특약을 추가하게 되면 수술의 범위 또한 약 90여종으로 대폭 확대시킬 수 있다.

또 생보업계 최초로 수술관련 특약을 세분화해 관혈·비관혈의 수술형태나 암·심장·뇌혈관·간·폐·신장·췌장 등 질병부위 별로 고객이 원하는 보장만 직접 선택해서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고객이 자신의 병력이나 가족력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

수술비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으로 인해 관혈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한 사망보장 금액의 80%를 선지급 받아 생존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수술에 대해 가입한 특약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계약 3000만 원과 일부 특약을 가입하고 뇌혈관 관련 관혈 수술을 받게 된다면, 주계약 선지급금 2400만 원(주계약의 80%)에 특약 가입금액까지 최대 6400만 원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치료를 받다 사망을 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주계약 금액(600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수술비 종신보험은 남녀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40세, 남자, 납입기간 20년납 기준으로 주계약 3000만 원과 의무부가특약들과 중증수술특약 가입 시 보험료는 9만3775원이다.

## 고령자·유병력자도 간편심사로 가입

### 교보생명

#### (무)교보실속있는간편가입건강플러스종신보험

교보생명은 고령자와 유병력자도 쉽게 가족생활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무)교보실속있는간편가입건강플러스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업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장을 결합한 간편심사 종신보험으로, 3가지 질문에 답하면 간소화된 계약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증질환이나 과거 병력이 있어도 3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된다.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 △최근 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최근 5년 내 암·간경화·파킨슨병·루게릭병·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등이다.

이 상품은 주계약을 통해 사망은 물론 일반적질병(GI)을 평생 보장한다. GI 발병 시 사망보험금의 80%를 진단보험금으로 미리 받아 의료비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은 물론, 말기신부전증·말기간·폐질환·루게릭병·다발경화증·중



증세균성수막염 등 12종에 이르는 주요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3대 질병은 정도에 관계없이 해당 질병코드 진단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커졌다. 43종의 특약을 통해 3대 질병은 물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혈전용해치료, 루게릭병·특정파킨슨병, 대상포진·통풍, 생활습관병, 주요법정감염병, 각종 입원·수술 등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도 장점이다.

보험료 부담도 낮췄다. 가입 시 '저해지환급금형'을 선택하면 보험료 납입기간에는 해지환급금이 '일반형'에 비해 50% 수준만 지급되는 반면, 보험료는 10~13%가량 저렴하다.

## 암 예방부터 치료·요양까지 '올 케어'

### 미래에셋생명

#### 헬스케어암보험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3월 출시한 '헬스케어암보험'을 판매 중이다. 암 예방부터 치료와 요양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올 케어(ALL-Care)' 가능한 이 상품은 기존 암 보험의 장점들을 집대성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해 위험성이 높은 주요 질환에 대해 추가 보장까지 준비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암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을 활용하여 암에 대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높은 금액의 진단 보험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보험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과 전립선암까지 일반암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약을 활용하면 일반적으로 소액 보장을 받는 갑상선암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 유사암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진단 보험금 준비가 가능하다. 특히 부작용은 덜 하지만 높은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추가 특약을 선택해 6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암 이외에도 필요한 보장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심장과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진단자금은 물론, 각종 수술과 입원 보장이 가능한 특약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암 보험을 넘어 주요 질환까지 '올 케어(ALL-Care)' 가능한 상품이라는 평가이다.

이 상품은 고객들의 실질적인 암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흡연자와 자궁경부암(HPV) 백신을 접종한 여성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다자녀 출산여성 특정 암보험료 할인특약'이 탑재돼 해당 여성고객은 더 큰 혜택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 선택 특약 통해 원하는 부위만 집중 보장

### NH농협생명

#### 두개만묻는NH건강보험(갱, 무)

NH농협생명은 유병자와 고령자도 두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두개만묻는NH건강보험(갱, 무)'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 여부 △5년 이내 암, 간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의 진단, 입원, 수술 여부 등 두 가지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 가능하다.

또 12가지 선택특약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부위만 집중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특약이 각각 있어 부족한 보장의 부위만 선택할 수 있다. 입원수술특약에 가입한다면 3대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과 수술비를 지급한다. 3대질병에 대한 보장특약(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보장특약)은 기본형과 생활자금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본형을 선택할 경우 3대질병 진단 시 1000만 원을 보장한다. 생활자금형을 선택하면 3대 질병에 진단을 받았을 경우 3년 동안 생존 시 최대



36회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초기 12회의 경우에는 생존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또 '뇌졸중보장특약(갱, 무)' 및 '급성심근경색증보장특약(갱, 무)'에 가입했다면, 뇌와 심장에 관한 보장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 무)' 및 '허혈성심질환진단특약(갱, 무)'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특약을 통해 신의료기술 중 하나인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 1000만 원을 보장한다. 기존 모든 조직에 영향을 주어 심각한 부작용을 주던 항암 방사선 치료와 다르게,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에게만 영향을 주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 골절·수족구·백혈병 등 소아 걱정 끝!

### 신한생명

#### 무배당 진심을품은아이사랑보험

신한생명은 어린이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사고부터 중대한 질병까지 생애주기별로 보장받을 수 있는 '무배당 진심을품은아이사랑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의 주요특징은 평생건강을 위협하는 △백혈병·골수암 △일반암(소액암 제외) △뇌출혈(신생아뇌출혈 제외)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만성폐질환을 최대 100세까지 5000만 원(보험가입 1년미만 2500만 원) 보장한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골절, 갑상선, 응급실 내원진료비, 첫날부터 입원급여금, 수족구, 독감(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한다. 수족구 진단금 10만 원(연간 1회), 독감 치료비 10만원(연간 1회), 골절 진단금 30만 원을 각각 보장한다.

이 보험은 지난해 1월 출시한 프리미엄 상품인 '진심 브랜드'를 입혀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후 납입



할 보험료를 더해 진단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탑재했다.

이 밖에도 신한생명은 보험료 완납시점 환급금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진심을품은종신보험P △진심을품은종신보험S 등을 이번에 함께 출시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이 보험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질병과 재해보장을 강화하고 5대질병 진단시 '올페이 급여금' 기능을 탑재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는 생애주기별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 화재·상해·치아·소송...보험 하나로 안심

## KB손해보험

### KB가정보험과 온가족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

KB손해보험은 지난달 가정의 달을 맞아 주택의 화재손해는 물론 배상책임, 법률비용, 상해사고, 자녀 치아건강관리 등을 하나의 보험으로 보장하는 신(新)가정보험 'KB가정보험과 온가족 행복하게 사는 이야

기'를 출시했다.

KB손해보험이 출시한 'KB가정보험과 온가족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은 기존의 화재보험 대비 보장의 영역을 확대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우선 소재지 추가를 통해 내 집은 물론 양가 부모님 집 등 최대 3개의 주택까지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보장이 가능하게 하여 보장의 폭을 넓혔고 민사·행정소송,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보증금 분쟁 등에 대한 법



률비용 보장 대상을 기존 피보험자1인에서 가족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어린 자녀의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도포

치료비(연간1회)' 보장을 새롭게 탑재함으로써 '치주질환치료비', '치아활영비', '스케일링치료비' 보장과 함께 자녀의 치아건강까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입설계 시 '재물 주소검색 자동등록 서비스'를 통해 국가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의 정보를 반영해 주소만 입력하면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 등 상세정보의 별도 입력 없이 가능하게 한 점도 특징이다.

배준성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가정의 입장에서 하나의 보험가입으로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가정보험 개발을 위해 집중했다"고 말했다.

# 정신질환·성인병 등 생활질병 집중케어

## 현대해상

### 마음드림메디컬보험

현대해상은 현대인의 생활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을 판매 중이다.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면역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정신질환·만성질환·성인병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고비용의 치료는 물론, 입원·수술·통원으로 이어지는 치료의 모든 과정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180일 이내 통원에 대해 최대 20일까지 통원치료일당을 지급함으로써, 치료에 전념해 입원 이전의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계 처음으로 정신질환치료보장과 피부건선치료보장을 도입해 생활질병 보장을 더욱 강화했다.



우울증·공황장애·강박증·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90일 이상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며,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치성 피부질환인 건선에 대해 광선치료와 약물치료를 보장한다. 난임치료비 담보를 통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대해 보장(각 1회)하며, 표적항암치료비나 혈전용해치료와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가의 신의료치료비용도 보장한다.

# 갱신 없이 100세 보장 신개념 간편보험

## 삼성화재

### 335-1 유병장수 100세

삼성화재는 세만기로 가입할 수 있는 중간편보험 '335-1 유병장수 100세'를 판매 중이다.

삼성화재는 최근 간편보험 라인업을 기존 연만기 중심에서 세만기로 확대했다. 연만기란 최대 20년만기 20년납으로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하는 상품을 말하며, 세만기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계속되는 상품을 말한다.

기존에는 '325-1 유병장수'에만 세만기 상품군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325-1 유병장수', '335-1 유병장수' 상품들을 세만기로 만날 수 있다.

이번 상품 개정으로 최대 30년납으로 100세까지 갱신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간편보험 상품은 20년 자동갱신형 상품으로 가입나이는 최대



90세였다.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의 가입연령 또한 50세에서 70세로 확대되며 상품경쟁력이 확대됐다.

무해지·저해지 상품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긴 보장기간으로 보험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고객들의 선택폭을 넓힌 것이다. 무해지·저해지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 중간에 상품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간편보험 상품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 ADHD·성조숙증·아토피까지 촘촘한 설계

## NH농협손해보험

###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104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4월 개정 출시한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104'를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골절, 화상, 갑스 등의 질병·상해부터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대한 질병(다발성 소아암, 양성뇌종양 등)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이다.

부정교합, ADHD, 성조숙증, 중증아토피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태아부터 30세까지 가입 가능해 어린이는 물론 대학생, 2030세대 사회초년생 등 젊은 나이에 합리적인 보험료로 다양한 보장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출시됐다. 보장기간은 80세, 90세, 100세 만기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3종 표준형의 경우



20세, 30세 만기도 선택 가능하다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104'의 가장 큰 특징은 120여개의 다양한 특약으로 다양한 자녀보장과 더불어 성장주기별로 발생하는 주요 생활질환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부위별 손상 등 상해사고에 대한 입원비/수술비부터 성인이 되고 발생할 수 있는 3대질환까지 보장한다.

# 3대 질병 '검사·치료·재활' 업계 첫 지원

## DB손해보험

### 예방부터 재활까지 건강보험

DB손해보험은 '예방부터 재활까지 건강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3대 질병(암·심장·뇌혈관질환) 관련 검사비 및 전조 증상 진단 등 예방에 대한 보장과 치료 이후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

3대 질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2·4위를 차지하는 중증 질환이며, 의료비 부담이 커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DB손해보험은 이러한 3대 질병에 대한 검사(CT·MRI·초음파·PET·뇌파·뇌척수액·혈관조영술) 지원비와 고혈압 치료비를 제공한다. 또 주요 심장 염증 질환,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 손상 등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신규 진단비를 포함시켜 보장 범위를 넓혔다.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월납 5만 원 이상인 피보험자는 청약일 30일 이후 5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분야별 전문가 건강 상담 서비스, 전국 검진 센터 예약 및 지원, 전국 50여 개의 대형 병원의 편리하고 빠른 예약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뇌심장 관련 장애를 보장하는 뇌심장애 진단비, 첨단기술로 재활치료를 돕는 로봇재활지원비 등도 보장한다.

# 10년 이내 병력 알리면 보험료 30% 할인

## 한화손해보험

### 무배당 LIFEPLUS 더건강 더실속 건강보험

한화손해보험은 간단한 병력고지로 최대 약 30%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무배당 LIFEPLUS 더건강 더실속 건강보험(연만기 갱신행)'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건강정보·건강검진 결과서 제출이나 건강체크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기존 상품의 알릴사항에 추가로 최근 10년 이내 입원·수술여부, 3대질환 진단여부를 고지하면 할인된 보험료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업계 처음으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 소견이 나온 고객에 대해 추가검진을 위한 건강검진권(50 만원) 또는 고혈압·당뇨병건강관리비(10만 원)를 지급하는 특약을 신설했다. 고객이 상해나 질병에 따른 입원치료로 간병인 지원을 원할 경우 간병인지원 입원비 특약을 통해 최대 180일까지 지



원받을 수 있다. 간병인 이용시 48시간전 콜센터로 신청하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간병인지원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간병인지원 입원비로 보상한다. 또 특정항암 호르몬약물허가 치료비, 항암 양성자 방사선치료비, 항암제기 조절 방사선치료비 등에 대한 새로운 암 치료기법의 담보를 신설했다. 가입연령은 10세부터 60세까지다. 10·20·30년만기 전가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재가·시설급여 이용 시 월 30만원 지급

## 메리츠화재

###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메리츠화재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재가·시설 급여부터 치매 등 노인성 질환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는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재가·시설급여 이용시 매월 최대 30만원을 보험금 지급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한다. 전용 상담 핫라인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청구·보장 내용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 1200여명의 전문 요양보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 직영방문요양 회사인 '케어링(주)'과 파트너십을 맺어 안정적이고 신속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품은 표준형과 해지환급금50%지급형(납입후 100%), 해지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 50%) 3가지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표준형 대비 해지환급금 50%지급형은 10%, 해지환급금미지급형은 20~30%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 면제 제도를 운영해 상해·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시 추가보험료 납입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한번의 연기, 불안한 개막  
 관중도 환호도 없이 조용히.  
 하지만 스포츠는 쇼가 아니야  
**그 날을 위해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을 넘어설 것이다.”**

**대한민국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국가대표 스포츠클라이밍팀 공식후원사  
**신한금융그룹**





# “빨간 머리에 ‘초심’ 담았어요”

## 뮤지컬 ‘드라큘라’ 김준수

2014년 초연 이후 네번째 무대 뮤지컬의 지름길 알려진 작품 ‘드라큘라=김준수’ 타이틀 모든 작품 소중하지만 더 애정

깨지지 않는 공식이 있다. ‘드라큘라=김준수’라는 타이틀이다. 배우에게 이보다 더한 영광이 있을까. 김준수(사진)는 4연째 이어지고 있는 뮤지컬 ‘드라큘라’에 한결같은 빨간색 머리로 등장해 치명적이면서 신비로운 매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관객에게도 김준수에게도 ‘드라큘라’는 잃고 싶지 않은 ‘그것’이 됐다.

최근 화상으로 김준수와 인터뷰를 했다. 김준수는 “모든 작품이 소중하지만, 4연까지 공연을 올린 것은 ‘드라큘라’뿐”이라며 “‘드라큘라’는 제게 힘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뮤지컬이라는 길의 지름길을 안내해준 작품”이라고 말했다.

2014년 초연부터 2016년, 2020년 그리고 올해까지 ‘드라큘라’에 출연하는 김준수에게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초연 때와 완전히 다른 책임감과 무게감이 생겼다. 자신을 보러 와준 관객을 위해서라도 매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공연하고 있다는 그다.

다만 이전에 생기지 않았던 의문이 4연에 참여하면서 갑자기 생겼다. 조나단은



왜 괴물 모습의 드라큘라를 보고 도망가지 않았는지, 미나는 드라큘라가 뿜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왜 피하지 않는지 등 수없이 많은 의문점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많은 분이 미나가 환생한 건지, 엘리자베스와 닮은 사람인 건지 물어보세요.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연기하는 건 ‘환생’이에요. 미나는 저를 현생에선 처음 보는 거지만, 저한테서든 과거에서든 서로 이끌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자석의 S극과 N극처럼요. 낯설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서로인 거예요.”

김준수에게는 ‘드라큘라장인’이라는 수

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는 자신만의 차별점을 ‘사이코적인 기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간적인 모습을 지우고, 오싹하고 섬뜩한 드라큘라를 표현하는 중이다.

김준수의 이름 앞에 ‘뮤지컬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은 지도 11년이 됐다. 그 기간 중 배우 인생의 변곡점이 된 때는 뮤지컬 ‘모차르트!’에 참여할 때라고 했다. 낭떠러지에 떨어진 상태에서 제2의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준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런 ‘모차르트!’가 애뜻함이라면 ‘드라큘라’는 다채로운 김준수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작품이다.

“제 다양한 모습을 한 작품에 보여줄 수 있어서 ‘드라큘라’를 좋아해요. 순애보적인 사랑을 하면서도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거든요. 1000회를 맞이했을 때 ‘준수 오빠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노인 분장을 안 해도 되고, 변신 이후 젊어진 모습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드라큘라’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제는 ‘드라큘라’의 상징이 돼 버린 빨간 머리의 김준수는 더 오래도록 볼 수 있을 듯하다. 빨간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염색을 해주고, 베갯잇에 수건을 깔고 자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관객의 반응을 보면 고통도 어느새 잊힌다.

“이제 빨간 머리를 안 하면 초심을 잃었다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되는 거 있죠?” (웃음) 김소희 기자 ksh@

“스트리밍 영화는 오스카 후보 자격 없다”더니...

## 스필버그의 이유 있는 변심

세계적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사진)가 스트리밍 영화를 만든다. 극장에 걸리지 못하는 영화에 대해 과거 인색한 평가를 했던 그가 태도를 바꾼 것에 할리우드도 주목하고 있다.



여기 있다. 그랬던 스필버그가 스트리밍 영화를 만들기로 한 것은 그동안 경험에서 나온 인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스필버그는 과거에도 넷플릭스와 애플TV+, NBC 유니버설의 피콕 등 여러 스트리밍 업체들과 종종 프로그램 제작을 협업했다. 이후 그는 2019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신에게 맞는 즐거움을 찾기를 바란다. 화면이 크든 작든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이야기를 다루는 콘텐츠”라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 “화면 크기 상관없다 콘텐츠가 중요” 입장 선회  
코로나19에 극장 문 닫자 ‘...시카고7’ 넷플릭스 배급 이번엔 정식 영화제작 계약

21일(현지시간) 월 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애플과 트너는 영화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애플과 트너는 스필버그 감독이 설립한 영화사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향후 여러 편의 장편 영화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스필버그 감독은 성명을 내고 “양사는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들려주게 됐다”며 “이는 관객들에게 다가갈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업체가 제작한 영화를 “TV 영화”로 규정하며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8년 ITV와의 인터뷰에서 “집에서 시청하는 스트리밍 영화는 에미상을 받을 자격은 있지만, (극장 상영 조건이 있는) 오스카상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아카데미상은 최소 일주일 동안 로스앤젤레스(LA) 지역 영화관에 상영돼야 후보작에 올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진다. 그동안 넷플릭스 영화들이 좋은 평을 받아도 아카데미상에선 외면받은 이유가

WSJ는 “넷플릭스가 최근 유능한 감독을 모시기 위해 자사 작품을 극장에 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이렇게 기존 영화 산업에 융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 역시 스필버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영화 산업이 어려울 때 스트리밍의 도움을 받은 경험도 있다. 애플과 트너의 대표작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은 애초 파라마운트픽처스를 통해 극장 개봉 예정이었지만, 극장이 문을 닫자 넷플릭스에 배급권을 넘겨 흥행에 성공했다. 이후 작품이 아카데미상 여러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스필버그를 비롯한 할리우드의 인식을 바꿨다는 평을 받았다.

WSJ는 “넷플릭스가 최근 유능한 감독을 모시기 위해 자사 작품을 극장에 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이렇게 기존 영화 산업에 융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 역시 스필버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BTS ‘버터’,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4주 연속 1위

日 발매 베스트앨범은 1주간 78만장 판매 오리콘 정상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의 두 번째 영어곡 ‘버터’(Butter)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자신들의 기록을 또다시 넘어섰다.

빌보드는 21일(현지시간) BTS의 ‘버터’가 이번 주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BTS는 지난달 21일 발매된 ‘버터’가 4주 연속 1위를 지키면서 지난해 3주간 핫 100 1위를 기록했던 첫 영어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의 기록을 경신했다.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1·2주 차에 1위를 기록하고 이후 2주간은 2위를 했다가 다시 1위로 올라서 연속 1위 기록은 아니었다.

이로써 BTS의 핫 100 1위 횟수는 ‘다이너마이트’(3회), 피쳐링 참여곡 ‘새비지 러브’ 리믹스(1회), 한국어곡 ‘라이프 고스 온’(1회)에 이어 ‘버터’(4회)까지 총 9회다. 발매 후 핫 100 정상으로 직행한 곡은 빌보드 사상 54곡뿐이며, 이 중 4주 연속 1위를 지킨 곡은 ‘버터’를 포함해 13곡 밖에 없어 의미가 크다. 아울러 ‘버터’는 일본 가수 사카모토 규의 1963년작 ‘스키 야키’(3주)를 제치고 아시아 가수의 곡으로는 최초로 핫 100에서 4주 동안 1위를 한 곡으로 기록됐다.

한편, BTS가 일본에서 발매한 베스트 앨범 ‘BTS, THE BEST’가 오리콘 신기



록을 세웠다. ‘BTS, THE BEST’는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최신 차트(6월 28일 자/집계 기간 6월 14~20일)에서 78만 2000장의 판매량으로 발매 첫 주에 1위를 차지했다. 78만 2000장은 ‘주간 앨범 랭킹’ 기준으로 올해 첫 주 판매량 최고 기록이며, ‘해외 아티스트의 첫 주 판매량’ 기준으로 머라이어 캐리에 이어 역대 2위이다.

김재영 기자 maccam@ 이혜리 기자 hyeri@

## SK이노베이션 헝가리법인 지역사회 환경개선 자원봉사



SK이노베이션 헝가리법인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헝가리 코마롬시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법인 ‘SK Battery Hungary’(SKBH) 소속 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다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10월 헝가리에 연간 7.5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제1공장을 짓고 가동을 시작했다.

한상규 SKBH 최고경영자(CEO)는 현지 구성원 30여 명과 사업장 주변 산업단지에서 아카시아 초목을 심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지역사회 환경 개선 작업을 펼쳤다. 김대영 기자 kdy@

## 문성호·정중교 대표, 올해 2분기 ‘자랑스러운 中企人’

문성호(왼쪽 사진) ㈜문창 대표이사와 정중교(오른쪽) ㈜프레시지 대표이사가 올해 2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두 사람을 각각 2021년 2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창은 1992년 창립한 물탱크 제조 기업이다. 총 63종의 특허 및 인증을 바탕으로 상수도 관련 각종 저장시설을 제작해왔다. 이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데 이바지했다. 문 대표는 세계 최초로 스테인리스 먼진형 물탱크 개발 및 조달우수제품에 지정돼 제품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혁신대상 10년 연속 수상 및 한국표준협회 명예의 전당 헌정 등을 이뤘다. 또한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이업종 교류회 회장 활동과 대구



지역 기업의 품질 경영 활동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프레시지는 식품 산업의 혁신 스타트업이다. 밀키트를 시장에 선보이며 가정대용식(HMR)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식재료 90% 이상을 국내 농산물로 사용해 농가 소득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창립한 지 6년 만에 국내 밀키트 시장에서 약 63%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선두기업으로 기업을 급성장시켰다. 임직원 중만 34세 미만 비율이 50%를 웃돌 정도로 청년 고용률이 높다. 정 대표는 올해 1000여 명을 추가로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원 기자 leedw@

## ‘삼성전자 최연소 임원’ 卍 과학자 미스트리 전무 9년만에 회사 떠나

삼성전자에서 33세의 나이로 ‘최연소 임원’ 타이틀을 기록한 인도 출신 과학자가 최근 회사를 떠났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 사내 벤처 스타랩스(STAR Labs)장을 맡았던 프라나브 미스트리(사진) 전무는 최근 퇴사했다. 앞서 미스트리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삼성에서 9년간의 여정을 끝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로 했다”며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삼성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미디엄 출신인 미스트리는 ‘천재 과학자’로



불리며 2012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과학자 35명’에 포함되기도 했다. 2014년에는 33세의 나이에 삼성전자 최연소 상무로 승진했고, 지난해에는 39세 나이에 전무로 승진해 최연소 전무 기록도 세웠다. 미스트리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글로벌 싱크탱크팀장, 리서치아메리카 싱크탱크팀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삼성의 미래기술 사업화를 담당하는 사내 벤처 스타랩스장으로 인공인간 ‘네온’(NEON)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인사

◆데일리한국 △편집국장 문병언

## 부음

▲황병식 씨 별세, 최정희 씨 남편상, 황두환(경북대학교 연구교수)·덕기(화양초등학교 교사)·위선 씨 부친상, 김준영(한결테크닉스 대표이사)·손영동(화신정공 기획실장) 씨 장인상 = 22일, 경북 영천시 영락원 장례식장 특202호, 발인 24일 오전 8시 30분, 054-336-4444

▲임창숙 씨 별세, 이경훈(인천일보 경기분사 사회부 기자) 씨 조모상 = 21일, 광명성애병원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23일

오후 1시 30분, 010-5158-2006

▲정구현 씨 별세, 김대용·두용(육천보건소 보건행정팀장)·경희·경민 씨 모친상, 최자영 씨 시모상, 전병구·이주형(변호사) 씨 장모상 = 21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23일 낮 12시, 042-280-8181

▲박두혁(시사메디안 대표이사·전연세의료원 홍보팀장) 씨 별세, 양봉선 씨 남편상, 박혜은·진선·보연·우영·소리 씨 부친상 = 21일, 김포 설낙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3일 오전 9시, 031-449-1009

▲임재환 씨 별세, 문경순 씨 남편상, 임철근·병근(서울타임즈이사)·완근·귀순·금선 씨 부친상 = 21일, 한일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3일 오전 10시, 02-901-3440



유럽은 지금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한·EU FTA 10년, 새로운 10년을 위한 준비

통상협상 의제의 변화 또한 간과할 수 없다. EU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내부 조약의 체결, 발효 등을 통해 공동체가 가지는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FTA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 범위를 넓혔다. 대표적으로 EU는 FTA 내 투자협정 챕터를 두고 있으며, 이는 기존 한·EU FTA에 포함되지 않은 의제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이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시킨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로 만 10년이 된다. 한·EU FTA는 한국이 선진거대시장을 대상으로 FTA를 발효시킨 첫 협정이었다. EU의 입장에서도 2000년대 신통상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이후 원거리 역외국과 맺은 첫 FTA이다. EU는 세계 최대 시장이며, 27개 회원국이 단일시장을 이루어 고도의 시장자유화를 추구한 지역이다.

한·EU FTA는 무역 이슈 외에도 '노동 및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 등 다양한 비무역의제(NTA: Non-trade Agenda)를 포괄하고 있다. FTA 내 이와 같은 NTA 의제의 포함은 무역 이외에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 사례로 노동과 관련한 조항을 들 수 있다. EU가 추진하는 FTA 내 노동협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한·EU FTA 잠정 발효 당시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 조항을 비준한 상태였던 한국은 동 FTA 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부터 노동협정이행에

관한 압력을 올해 초까지 지속해서 받아 왔다. 각국의 노동 관련 법규는 국가마다의 노사문화, 산업발전 이행단계, 노동법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제도 등에 의해 상이하기 마련이다. 물론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국제기구, ILO가 수많은 노동과 사회 관련 조항 중 8개 조항만을 핵심협약으로 보편화한 데에도 주요한 의의가 있다.

EU는 한국이 이미 선진사회로 진입한 만큼 노동 분야 국제표준이라 할 수 있는 8개 조항의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미비준 4개 조항 중 3개 항목을 비준하기로 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법 개정 과정을 거쳐 올해 4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다. FTA 내 협상안은 통상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체결국 내 사회 전반에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다.

한·EU FTA 발효 10년이 경과한 지금, 이제 정부는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

요하다. EU는 2000년대에 체결한 FTA를 대상으로 현대화 협상을 진행해 왔다. EU-멕시코 FTA 현대화 협상(2020년 4월 28일 타결)이 대표적이다. 해당 협정은 이미 2000년 발효되었으나 2020년 개정 협상을 거쳤다.

현대화 협상을 통해 양측은 공공조달시장의 확대,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농업 개방 등을 포괄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직 한·EU 간 활발한 FTA 개정 움직임은 없으나, 최근 주한 독일대사관과 한독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공동개최한 FTA 10주년 행사에서 미하엘 라이펜슈틀 주한 독일대사는 한·EU FTA 현대화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통상협상 의제의 변화 또한 간과할 수 없다. EU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내부 조약의 체결, 발효 등을 통해 공동체가 가지는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FTA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 범위를 넓혔다. 대표적으로 EU는 FTA 내 투자협정 챕터를 두고 있으며, 이는 기존 한·EU

FTA에 포함되지 않은 의제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FTA 현대화 과정에서 통상과 투자의 관계를 고려하고, 양측 간 투자 확대를 이끌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EU FTA 발효 이후 EU가 다양한 FTA를 체결해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EU는 EU·베트남 FTA를 2020년 8월, EU·일본 EPA를 2019년 2월 발효하였다. 베트남과 일본은 한국과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류, 가전 등 주요 수출 영역에서 결합 구도를 이루는 국가들이다. EU·베트남 FTA는 원산지 규정에서 한국산 직물의 누적조항이 포함되어 한국산 섬유 중간재 제조 및 수출의 활로를 확보하기도 한 특수한 사례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역동적으로 변화한 통상환경과 무역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야 하며, 더불어 EU의 2020년대 신통상정책과 FTA 발효 확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FTA 선진국으로서 향후 10년 통상의 미래를 준비할 때다.

조여린의 벤처 만들기

미국 뉴스쿨 학장·패션스 디자인스쿨 경영학과 종신교수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이 내뿜는 메탄가스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해산물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식재료를 비행기로 운송하는 것도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맛을 포기하지 않는 식물성 육류 대체 식품이라든가, 중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생선과 해산물을 육지에서 공급하는 테크놀로지 벤처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세포를 배양해 고기를 만드는 배양육 개발 벤처들에 관심과 투자가 몰리고 있으며, 곧 상품화를 앞두고 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더욱 획기적으로 접근하는 벤처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바로 미생물 생명공학을 이용해 공기에서 단백질을 만들어 내는 기술로, 식물 단백질을 만드는 농지도 필요하지 않고 온실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야말로 청정 단백질을 생산하는 접근방법이다.

공기로 만드는 단백질

재미있는 것은 이런 황당(?)한 기술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항공 우주 패권 경쟁을 할 때 우주 비행사 식품 조달 방법으로 연구된 테크놀로지다. 이때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팀은 특정한 수소박테리아가 이산화탄소를 먹고 단백질을 토해낸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를 이용하면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도 인간이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바로 단백질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기술이 상품화될 소비 시장이 없어 그대로 묻히고 40년 넘게 잠을 자게 된다.

이렇게 잊혀져가던 기술이 온실가스의 주요 요소인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던 미국 바이오 벤처 키버디(Kiverdi)의 사내 벤처로 시작한 에어프로틴(Air Protein)이라는 기업에서 진행된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물리학자이자 생명공학자인 리사 다이슨이라는 흑인 여성인데,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벤처를 "공영 복지 추구가 미션인 벤처"라고 확고

히 정의하고 있다. 이는 바로 이 기술로 공해의 근본 원인을 없애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탄산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생산과 수송 단가가 현저히 낮으면서도 콩보다 훨씬 우수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에서 해가 되는 요소를 단백질로 전환하는 벤처는 에어프로틴뿐만이 아니다. 핀란드의 벤처기업인 솔라푸드(Solar Food)는 단백질에서 더 나아가 탄수화물과 지방을 뽑아내는 미생물을 개발하고 있다. 이미 기존 식품의 단백질 성분을 높이는 식재료 첨가물로 '솔레인'이라는 브랜드의 상품화를 진행하고 있다. 공기로 단백질을 만들어 상용화하고 있는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 칼리스타(Calysta)도 있다. 이 벤처는 메탄가스를 단백질로 전환하여 동물 사료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인도 벤처인 스트링바이오(String Bio)도 소의 트림과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으로 사료용 단백질을 제조하고 있다. 인도는 특히 소를 신성히 여기는 나라이기

에, 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어찌할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공해라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신성한 소를 도축하지 않고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전환시켜 기근과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동물이나 해양 수산 양식의 사료로 사용하던 인류를 위한 육류 대체육으로 개발하든, 공기로 단백질을 만든다는 접근방법은 콩으로 육류를 대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예를 들어 1kg의 대두를 생산하는 데 2500 l의 물이 필요하다면, 1kg의 공기단백질 생산은 10 l 정도의 물만 있으면 가능하다. 더욱이 식물처럼 몇 달이 넘는 작물 재배 기간이 필요없고 기후와 토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단시간에 식품을 어디서나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아무리 증가한다 해도 지구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껏 무분별하게 놓여 놓은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줄여 아픈 지구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너스 소크 명언 "나는 아름다운 꿈도 꾸었고 악몽도 꾸었으나 아름다운 꿈 덕분에 악몽을 이겨낼 수 있었다."

미국의 의학자. 세균학·역병학 등의 예방 의학을 연구하였으며, 소아마비의 예방 백신인 '소크백신'이라는 불활성 백신을 개발하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법 개발에 힘쓴 의료계의 선구자로도 평가받고 있다. 오늘은 그가 생을 마감한 날. 1914~1995.

☆ 고사성어 / 유단취장(有短取長) 단점 속에서도 장점을 취한다는 말이다. 조선 시대 실학의 태두(泰斗) 성호(星湖) 이익(李瀾)이 사물의 원리를 관찰한 '관물(觀物) 편'에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설사 단점이 있더라도 그 속에 갖는 장점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 생긴 성어이다. 이익이 집안의 감나무 두 그루 중 감이 잘 안 열리는 한 그루를 베어내려 하자 아내가 만류했다. "열매가 적게 열려도 대봉감이어서 제사상에 올리기 좋고, 저건 맹감이지만 말려서 감 말랭이 굵것질로 좋다"고 해 그만두었다.

☆ 시사상식/디마케팅(demarketing) decrease와 marketing의 합성어. 기업이 고객의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여 적정 수요를 형성하고 관리해 제품을 합리적으로 판매하는 기법이다. 초과수요 상태에서 고객 만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수요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고 가용한 제품을 합리적으로 할당하려는 것이다.

☆ 고운 우리말 / 짜장 과연. 정말로란 뜻.

☆ 유머 / 스텐트맨 영화제작소를 찾은 방문객이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리고, 절벽을 뛰어넘는 스텐트맨의 묘기와 용기를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저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방문객이 묻자 안내원이 한 대답. "글쎄요. 모르겠어요. 매번 다른 스텐트맨을 채용하니까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사수첩

남 주현 유통바이오부/jooh@



쿠팡이 소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바꾸면 말이다. 17일 미국 증시에서 쿠팡의 증가는 전일보다 2.74% 올랐다. 18일에 소폭 떨어진 후 21일 소폭 반등해 화재 발생 전날(16일) 대비 상승폭은 1.99%다.

쿠팡의 언론 대응으로 화마를 입은 덕평센터는 앞으로 추가되는 많은 센터 중 하나로 의미가 축소됐고, 의결권 76%를 보

유한 창업자의 위험부담이 줄었다는 점이 반영됐을 터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경영의 주요 리스크로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고객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대목이다. 김 창업자의 등기 이사 사임 소식 이후 화재 진압 중 실종된 김동식 119

구조대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쿠팡 불매 운동으로 번졌다. 부라부라 쿠팡은 "고 김동식 대장의 유가족과 덕평물류센터 직원들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 같은 선의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확진된 직원의 배우자가 감염돼 1년 넘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쿠팡과의 최종 협상은 21일 결렬됐다. 현 산업재해 제도는 배우자까지 산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창업자는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재벌총수) 지정에서도 벗어나 법적 책임을 피했다. 그렇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 창업자는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가 아닌 "고객 없는 쿠팡은 어떻게 될까"를 되새겨 봐야 할 시점이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9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파괴적 혁신과 이준석 현상

이준석 바람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여당은 원내당으로 비칠까 전전긍긍한다. 야당은 겉으로 웃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정치 변동성이 커졌다. 흥미진진한 드라마에 관전자인 국민은 즐겁다. 내년 대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36세 0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장이 불러온 새바람이다.

이준석 현상은 '파괴적 혁신'과 '창조적 파괴'라는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파괴적 혁신은 미국의 경영학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제시한 개념이다. 혁신에는 '존속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이 있다. 존속적 혁신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점차 개선해 더 나은 성능을 원하는 고객에게 높은 가격에 파는 전략이다. 파괴적 혁신은 단순히 저렴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시장 밑바닥을 공략해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이다. '창조적 파괴'를 주장한 이는 조지프 슐더였다. 기술혁신을 통해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경제구조를 혁신한다는 게 골자다. 혁신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의 역동성을 강조한 이론이다. 두 이론은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시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혁신은 국민의 요구이자 역사의 발전과정이다.

여권에 대한 민심이반과 이준석 현상은 혁신의 차이가 부른 결과다. 늘 반박 앞서는 대기업은 평시에는 어려움이 수익을 창출하지만 제4의 물결 같은 격변의 파고를 넘기는 쉽지 않다. 위기의 순간에 경쟁우위를 과신해 기존 전략을 고집한다. 기득권의 관성으로 혁신에 실패하는 이유다. 중저가 핸드폰으로 글로벌 시장을 석권했던 노키아가 대표적이다. 스마

## 데스크칼럼

### 이재창

오프라인뉴스룸 에디터



트폰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부보고서를 무시하고 기존 전략을 고수했다. 그러다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출시 한 방에 무너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우량주로 존속적 혁신 세력이다. 야당이 워낙 존재감이 없다 보니 조금만 개혁적 모습을 보여도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공들이지 않고도 전국 선거서 4연승했다. 20년 집권론을 꺼낼 정도로 오만해졌다. 민심이 돌아서는 여러 징후에도 기존 전략을 고수하다 서울·부산 시장 선거서 참패했다. 진정한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중부세 기준 완화 등 원칙도 없는 민심 수습용 임기응변에만 급급하고 있다.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진문은 여전히 견재하다. 점진적 개혁으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낙관론에 빠져 있다.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거꾸로 열등주 국민의힘의 반전 스토리는 혁신이론 그대로다. 탄핵세력으로 낙인찍힌 국민의힘은 난파선이었다. 여러 차례 당명을 바꿔봤지만 허사였다. 지난 4년 동안 지지율은 바다였다. 선거선 연전연패했다. 사실상 재기불능 상태였다. 21대 국회는 민주당 1당 국회나 다름없다. 입대차보호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의 민주당 단독 처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존재감도 없고 무기력했다. 대한정당은 꿈도 꾸지 못했다. 처절한 반성과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였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였다. 김 전 위원장은 보수세력의 역사적 과오부터 정리했다. 박근혜 탄핵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고,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꿇고 사과했다. 불행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한 자기 부정이었다.

이런 파괴적 혁신은 선거 승리와 이준석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 재기를 모색해온 국민의힘에 기회를 준 건 여론이었다. 독주와 오만으로 민심이 돌아서면서 틈새가 생겼다. 여론은 조국사태로 내로남불의 표적이 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돌아선 민심에 불을 질렀다. 야당의 선거 압승은 실력보다는 여당의 헛발질이 결정타였다. 여당의 추락은 야당엔 기회다. 틈새 공약으로 일거에 시장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청년 이준석을 대표로 선출한 것은 새로운 정치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창조적 파괴의 신호탄이었다. 정치권 세대교체 열망에 정권 교체에 바라는 보수민심의 전략적 선택이 더해진 결과다.

이준석의 등장으로 정치혁명은 시작됐다. 운동권 86그룹 중심의 정치권 세대교체를 넘어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의 화두를 앞세운 2030 중심의 세대교체 의미가 담겨 있다. 수직적 위계질서는 수평적 리더십에 밀려날 것이다. 이준석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변화의 바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당장 내년 대선은 공정과 정의의 시대정신을 앞세운 혁신 경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이기는 세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다. 돈과 조직은 큰 변수가 아니다.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는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leejc@

## 사설

### 민간부채 폭증에 금융불안, 충격 대비책 급하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친 민간 신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훌쩍 넘기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 빚의 급격한 증가로 금융불균형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금리인상 등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금융시스템 위기와 경제성장률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공개한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민간부채는 모두 3167조 2000억 원이다. 명목 GDP 대비 216.3%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9%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민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2배를 웃돈 것으로, 통제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가 1765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5% 늘었다. 주택구입을 위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는)과 '빚투' (빚내서 주식 투자) 수요가 몰리고, 저소득층의 생활자금 조달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기업부채도 1402조 2000억 원으로 14.1%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난 자금수요와 정책당국의 금융지원 등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반면 상황능력은 악화하고 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분기 말 171.5%로 1년 전에 비해 11.4%p 높아졌다.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다. 기업사정도 나빠지고

있다.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20년 이자보상배율 1 이하인 한계기업이 분석 대상 2520개 가운데 39.7%인 1001개였다. 기업 5곳 중 2곳이 영업 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주목되는 건 한은이 이번에 처음 산출한 '금융취약성지수'(FVI)다. 자산가격과 신용축적, 금융기관 복원력을 평가해 금융불균형 정도를 가늠케 한다. 1분기 58.9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41.9)보다 17.0p나 급증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60.0) 이후 가장 높다.

문제는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신용위험과 금융불균형이 지속할 경우, 주택가격 급락과 함께 내년 GDP가 -0.75%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 충격을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만큼 금융불균형과 민간부채 증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한은이 선제적 금리인상 신호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시장에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배경으로 보인다.

한은은 금융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다각적 정책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돈 풀기에만 몰두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부채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민간신용 대책 마련과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 기후변화 이야기 - ③ 정제된 4년, 안주의 본능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 지 1년이 지나면 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느덧 잊힌 인물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국에서의 트럼프는 흘러간 정치인이다. 하지만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라는 정서는 사라지지 않고 살아 있다. 그것은 세계화의 물결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전통적 중산층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왜 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는지, 비록 국제 사회는 정제된 4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결정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공화당과 트럼프 후보는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파리 협정이 미국민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민주당 정부의 협상단이 중국의 사기(hoax)에 당했기에 협정에서 탈퇴해야 한다고까지 역설하면서, 집권 후 협정 탈퇴를 약속한다. 이러한 공화당 주장의 근거는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 약속(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찾을 수 있다. 파리 협정에서 중국은 자국의 탄소배출 원 단위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겠다는 NDC를 제출한다. 이 방식은 중국이 경제 성장을 큰 폭으로 계속한다면 온실가스의 절대량이 늘어나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이다. 지난 글에서 밝혔듯이 경제발전의 후발주자인 중국의 입장을 인정하 위대한 타협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러한

## 조석의 遠見明察 (원견명찰)

현대일렉트릭 사장



타협은 지나치게 중국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2017년 6월 파리 협정에서의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 공화당은 파리 협정에서 인정한 온실가스 감축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인 석유, 가스, 석탄 산업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국민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지지자를 설득한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대의보다는 현실적 이익이 우선이라는 본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나름대로 정교하게 구성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첫 번째 목표인 에너지 독립은 미국 내에서의 자원 개발 활성화, 에너지 산업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대 매장량과 생산 능력이 있는 셰일가스를 활용하여 에너지 독립을 넘어 에너지 패권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미국민의 자부심을 북돋운다. 2018년 발표한 6대 에너지 정책은 석유, 가스 개발에 따르는 규제 완화, 에너지 산업 수출 지원, 그리고 새로운 원자력 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힘으로 자신들에게 필요

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 수출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의 동행(Parallel Implementation)을 강조하지만, 행정부 주요 인사에 석유 산업 이해관계자 또는 파리 협정 반대론자들을 임명하고 환경정책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은 자연스럽게 미국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축소되어 가고 있었다.

미래 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남겨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선진국의 재정 참여와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다.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과 재정을 누군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감축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난 4년 동안 약속했던 100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은 뒷전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보냈다. 하지만 미국의 지방 정부와 민간은 나름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연방 정부의 파리 협정 탈퇴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민간 기업은 환경 경영을 단순한 홍보 효과용이 아니라 절실한 경영 원칙으로 삼았다. 신재생 에너지를 100% 활용하겠다는 RE100 등의 노력은 점점 더 확대되어 오늘날 필수 과제가 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씨가 싹트고 있었다.

## 진료실 풍경 한글 배우니 혈당이 좋아진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퇴행성 무릎관절염. 처음 그 할머니를 보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병력들이다. 체중이 87kg에 달하니, 이 체중을 줄이지 않고서는 혈당도 혈압도 무릎의 통증도 조절이 요원했다. 나는 진료실에서 열심히 혈당 조절에 대한 설명을 했다.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 무료운동교실에도 연결해 드렸으나, 두어 번 나오시려는가 싶더니 이내 발길을 끊고 오직 진료만 받으러 오셨다. 혈당은 쉽게 조절되지 않았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집중 교육을 다짐하고 간호사가 할머니를 상담실로 모시자, 진료실에서 술하게 만나왔던 나에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백을 하셨다. "저는 사실 글을 몰라요." 교육자료를 가지고 집중적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던 간호사는 당황하였다. "아, 글을 모르신다고요? 그럼 제가 당뇨 식단과 교육자료를 드려도 읽으실 수가 없겠군요." "글 배우고 싶는데..."

70세가 넘도록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상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주치의인 나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셨던 걸까. 진료시간이 교육시간보다 짧으니 그 시간 안에

충분히 본인 얘기를 하지 못하셨던 걸까.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신다는 말을 전해 들은 나는 한글 문해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주민본(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떠올렸다. 그분께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문의했다. 살림의원 데스크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은평구 내에서 어르신들이 들으실 만한 한글교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며칠 후 시작되는 한글기초반에 등록할 수 있었다.

할머니의 체중은 87kg에서 73kg까지 줄었고, 혈당도 잘 조절되어 당화혈색소 8.6에서 6.8이 되었다. 물론 글을 읽게 되었다고 혈당과 체중이 자연히 줄어드는 건 아니고, 당뇨약도 바꾸고 식단도 바꿨다. 이제는 아들 약과 손녀 약의 어려운 외국어 이름도 제대로 읽으실 줄 알고, 식구들에게 이런저런 오지랖 섞인 간섭도 하기 시작하셨으며, 한글교실 다른 할머니들과도 친교가 생겨 사회활동 영역을 넓히셨다. 나는 이것을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다학제 팀진료의 성과라고 부른다.

추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상황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얼음정수기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정화기

에어컨

무선청소기

식기세척기

정수기

광파오븐

스티일러

워셔타워

건반대를 폐기하지 냉장고, 병동고, 김치냉장고

컬렉션 할수록 특별해지는 당신의 공간, 당신의 라이프

# 공간인테리어 가전 LG Objét collection